

{ ... 북한의 문화재는 한민족 공동의 문화 유산이며 더 나아가 세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 }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2**

북한의 문화재 실태



박 대 남 (국립문화재연구소)

통일교육원은 지난 2003년부터 통일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하여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를 시리즈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의 22 번째로 발간되는 이 소책자는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관리, 북한의 문화재 현황, 그리고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 소책자는 통일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위촉한 연구용역 결과물로, 반드시 통일부의 공식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2**

북한의 문화재 실태



I.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관리

05

1. 문화재 정책
2. 문화재 관리체계
3.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II. 북한의 문화재 현황

23

1. 선사유적
2. 고구려 고분 및 고분 벽화
3. 고려시대 왕릉
4. 석조물
5. 고건축
6. 금속공예 및 도자기, 회화
7. 무형문화재
8.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

III.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방안

77

1. 현황
2. 전망과 과제

84

참고문헌



I.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관리



1. 문화재 정책
2. 문화재 관리체계
3.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관리

북한의 문화재 실태

I.

1. 문화재 정책

북한은 해방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문화유산에 대한 주체사관을 확립해왔으며 그에 따라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해 왔다. 그러나 민족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에 있어서 민족문화 그 자체의 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활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재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 정책에 대한 시대별 인식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해방이후 정권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워 인민을 위한 교양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양시 낙방리 주변 한식고분 발굴(1947년), 인악 고구려고분

및 함경도 나진초도 원시유적 조사(1949년), 평안남도 온천리 공산리 유적(1950년) 발굴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1950년대 들어 민족문화유산의 복구·건설을 지시하고 고구려시대 유적이 산재해 있는 대성산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과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세운 궁궐인 안학궁터에 대한 복구 및 대성산 박물관 건설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고구려의 궁궐이었던 대성산의 안학궁터를 발굴함으로써 북한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의 역사성을 부각시킴으로서 한반도 내에서의 정통성과 제국주의로부터 주체적으로 존립해간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작업과 함께 문화유산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평양에 중앙력사 박물관이 신설되고 개성, 사리원, 원산, 청진, 함흥, 신의주, 해주 등지에 역사박물관을 복구하거나 신설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주체사상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모든 문화예술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72년 12월 채택한 헌법 37조에 “민족문화유산을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고 하여 공산주의 혁명과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족적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문화유산과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자주노선을 천명하면서 동명왕릉 발굴과 같은 고구려의 시조묘를 발굴하고 그것이 평양에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자주노선을 천명한 이후 역사를 주체적 입장에서 체계화하여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기초를 세우고 역사유적을 복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문화유산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적의 발굴과 복원에 당성과 노동계급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성·노동계급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에 입각한 유물 평가사업을 벌여 1975년까지 3,200여개 유적과 119,000여개 유물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 1970년대 이후에는 단순한 문화유산의 보존만이 아닌 인민의 애국심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85년 7월 11일에는 <주석명령 제35호>로 "문화유적유물 보존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하달하여 문화유적과 유물에 대한 기본방침을 6개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문화유적, 문화유물에 대해 각 행정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 그 관리를 분담시키고 있다. 당시 인민부, 사회안전부 등의 기관들까지 그 해당 구역 안에서 문화유적과 문화유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문 관리기관과 연계하여 분담하게 되었다. 또한 매년 4월과 11월을 문화유적 애호월간으로 정하여 모든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해당 문화유적과 유물의 보존관리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급 행정기관, 연구기관, 경제 관련 기관들에게 각각의 기능에 맞는 의무가 분담되고 있다. 또한 문화유적지와 관련된 공사에서 엄격한 규율이 세워져 공사 시행 전에 관계기관의 승인 및 전문기관에 의한 발굴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는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 체제의 등장, 동구 공산권의 붕괴 등 북한으로서는 대내외적으로 격변의 시대로, 전 국민이 애

국주의로 단결해야 했고 그 수단으로 애국주의를 복돋우는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3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 회의에서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의제가 상정되었고 9개 항의 최고인민회의 결정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94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문화유물 보호법》(이하 《문화유물보호법》으로 통칭)을 제정하여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총 6장의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재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제1장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원칙, 제2장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4장 문화유물의 보전관리, 제5장 문화유물의 복구개건, 제6장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지도통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바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사업을 벌이고 손상된 유물유적을 복원하는 사업과 이 사업의 전국가적 전사회적 진행, 주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의 강화를 통해 민족전통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계승 발전시켜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표방한 것이다.



〈그림 1〉 동명왕릉 전경 _ 고구려 427 원위체로 이전 / 1993 복원, 국보유적 36호

이에 따라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사업과 유적의 복원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이를 ‘정권의 정통성’ 주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민족사의 정통성이 평양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평양을 중심으로 유

물·유적 발굴과 복원 노력을 강화하였다. 고구려 사찰 광법사(90. 평양), 동명왕릉(93. 평양), 단군릉(94. 평양), 왕건왕릉(94. 개성)을 개축·복원하고 1998년 7월 세계유산보호협약에 가입하여 2004년 7월 유네스코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WHC)는 고구려 고분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다.



〈그림 2〉 단군왕릉 _ 1994 복원, 국보유적 174호



〈그림 3〉 왕건왕릉 _ 고려 943 축조 / 1994 재정비, 국보유적 179호

《문화유물보호법》에서는 문화유물을 “원시유적·성·봉수터·건물·건물터·무덤·탑·비석·도자기 가마터·쇠부리터와 같은 역사유적과 생산도구·생활용품·무기·조형예술품·고서적·고문서·인류화석·유골 같은 역사유물”로(동법 제2조) 규정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와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였다. 무형문화재를 문화유물보호법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해방 직후부터 이른바 ‘민족문화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민족문화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개조하여 이를 체제선전과 주민교양에 적극 이용하여 왔고 따라서 사회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유교·불교 문화재와 민속자료, 그리고 민속놀이 등의 무형문화재를 문화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민속놀이를 ‘조선민속놀이’로 명명하면서 이를 문화재와는 별개로 다루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천연기념물과 명승지에 관한 사항은 1990년 《천연기념물

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과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연구」에 이어 1995년 12월 《명승지·천연기념물 보호법》으로 별도의 법체제로 채택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법은 전문 42장 34조로 제정되었는데, 여기서 “명승지·천연기념물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 교양적 의의로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물로, 명승지에는 산·바닷가·호수·폭포·계곡 같은 것이, 천연기념물에는 동식물·화석·동굴·자연바위·광천 같은 것이 속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2. 문화재 관리체계

총 6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유물보호법》은 북한의 문화재 관리체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문화유물보호법》은 제1장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원칙과 제2장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4장 문화유물의 보전관리, 제5장 문화유물의 복구개건, 제6장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지도통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 원형보존의 원칙 하에 민족문화유산을 올바르게 계승발전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문화유물은 “일시유적·성·봉수터·건물·건물터·무덤·탑·비석·도자기 가마터·쇠부리터와 같은 역사유적과 생산도구·생활용품·무기·조형예술품·고서적·고문서·인류화석·유골 같은 역사유물”로(동법 제2조)

규정하고 있다. 문화유물은 그 소유권이 국가에만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제3조) 다만, 상속(相續: 世傳)에 의한 역사유물만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전국가적·전사회적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문화유산보호·관리는 '역사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된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 수집, 복구 및 유지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보호·관리를 위해 향후 국가적 지도와 문화유물 담당관리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제6조)

또한 수집된 문화유산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일반인들의 애국심을 강화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는 목적론을 천명하고 있다.(제7조)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국가문화유산보호·관리부문의 연구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얻어진 성과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또한 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발전시켜야한다고 밝히고 있다.(제8조~제9조)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그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발굴을 국가의 문화적 재보(財寶)를 늘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하고(제10조) 발굴은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전문기관만이 수행해야 하며, 특히 등록된 문화유산에 대하여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1조) 현장조사를 진행할 때에 발굴기관들은 조사기간 동안 유물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현장을 정리하여야 하고 발굴조사 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중앙문화유물보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기관이 지정하는 보존기관(박물관 등)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일반인이나 단체 등이 공사 과정이나 우연한 기회에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을 보존한 후, 그 결과를 중앙과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의 해당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만약 이러한 필요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서의 건설공사 등의 작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제13조)

한편, 위와 같이 우연히 발견된 유물이나 기타 유물들에 대한 수집활동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유물보존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중앙과 도의 역사박물관을 비롯한 전문 보존기관들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나 단체 등은 유물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반드시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유물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여 그 해당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국립기관이더라도 은행이나 수매기관 등에 유입된 문화유물(특히 귀금속류) 등도 반드시 문화유물보존기관에 이관토록 별도조항을 두고 있다.(제15조)

발굴이나 발견신고, 혹은 수집 등에 의해서 모아진 유물들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등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제16조),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에 따라 문화유산을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 및 '일반문화유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이들에 대한 평가신청서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장기관이나 개인(상속유물)이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 그 중 '국보문화유물'과 '준국보문화유물'은 내각에서 평가하고 그 평

가된 것에 대한 등록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문화유물’에 대한 평가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그리고 그 등록은 지방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문화유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및 일반인(상속유물)은 이들에 대한 현상변경사항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해당등록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등록된 것을 폐기, 이관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각이나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제20조~제21조)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공유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수집사업은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유물보존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들은 각 지방의 문화유적관리소와 역사 및 민속박물관 등과 같은 전임 관리기관들이며 이들 소장 기관들에게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제22조~제23조) 이들은 철저한 계획과 과학적 준비 하에 보수, 수복, 소독 등을 시행해야함은 물론, 적절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항상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하고 화재, 도난, 파손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제28조)

또한, 국가는 특정한 역사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유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경작, 시설물설치 등)를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제24조~제25조),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유적보호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것이라면 철거하여야 한다. 역사유적을 담당하는 기

권은 그와 관련된 표식기둥, 설명문 등을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보호용 울타리 및 주변 청결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26조) 옛 건물을 비롯한 이러한 역사유적에 대해서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박물관에서나 문화유산보존과 관련되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게 하고 있다.(제29조~제30조)

유물은 충분한 보존조건이 잘 갖추어진 보관고에 보관하며 손상의 위험이 있는 귀중한 유물에 대해서는 중앙문화유물보존기관의 승인을 얻어 모조품을 제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시 및 소장 유물의 촬영이나 벽화무덤의 관람 등은 사전에 문화유물보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31조~제32조) 문화유물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 건설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방문화보존지도기관과 자신의 상급기관에 필요한 문건들을 제출하고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도록 하고 있다(제33조). 전시회의 목적으로 국외에 반출하려고 할 때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제34조) 문화재의 해외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보로서 가치가 있는 문화유물에 대해서는 실측도면이나 사진자료 등을 확보하여 영구히 보관하도록 함으로써(제35조) 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복원, 복구, 개건(改建)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복구와 개건에 대해서는 파손되거나 없어진 문화유산 중 해당 역사적 시기를 대표할 수 있고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복구, 개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역사적 사실과 해당 시기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

영한 계획서를 만든 후에 전문기관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설계안은 중앙문화유물지도기관의 기준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36조~제38조) 한편, 사라진 역사유물의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할 수 있으나 반드시 중앙문화유물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제한을 두고 있다.(제42조) 현지 보존의 원칙으로 이전할 수 없는 역사유적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래의 장소에서 옮겨야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41조)

문화유산 보호·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도는 중앙문화유물지도기관이 담당하며 중앙과 지방의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전임 관리기관(문화유적관리소)은 관할구역 내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전임 관리 및 사회적 담당관리)를 분담하여 관리사업을 계획화하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해야 한다.(제43조~제44조) 문화유산이 집중되어있는 지역에 박물관을 건설하거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에 민속촌을 세울 수 있는데, 이때 설립주체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되며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5조) 문화유산보호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노력 등은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등 관련기관에 의해서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하며 이러한 자금 등을 타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이(제46조) 주목된다. 또한 내각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부분에서의 과학적 연구조건을 마련하여 주고, 이들 연구 성과를 문화유물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7조)

또한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 및 보급선양과 관련하여 이들 각 문화유산 관련기관들은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민중적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유산을 애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판 및 언론기관들도 이러한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 소개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고 있다.(제48조) 이와 같은 다방면에 걸친 문화유산보호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문화유산 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제49조)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원상복구 혹은 손해배상조치를 시키고(제50조) 문화유물을 도굴하거나 매매 혹은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발견유물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유물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조) 문화유산의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 보존관리, 복구, 개건 절차 등을 어겨서 문화유산보호관리에 지대한 지장을 발생시킨 기관이나 단체의 책임자 및 일반인에게는 그 사안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제52조)

천연기념물과 명승지에 관한 사항은 1990년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과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연구」에 이어 1995년 12월 《명승지·천연기념물 보호법》으로 별도의 법체제로 채택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법은 전문 42장 34조로 제정되었는데, 여기서 “명승지·천연기념물은 이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높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 교양적 의의로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물로, 명승지에는 산·바닷가·호수·폭포·계곡 같은 것이, 천연기념물에는 동식물·화석·동굴·자연바위·광천 같은 것이 속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또한 “명승지·천연기념물은 역사적 유래, 대상의 특성, 보존가치 같은 것에 따라 평가하고 등록하며 명승지·천연기념물의 평가는 내각이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

북한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최근 국립 문화재연구소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국보유적 193건, 보존유적 1,723건, 국보유물 83건, 준국보유물 121건, 명승지 223건, 천연기념물 467건 이다. 이를 통해 문화유물의 지정체계가 문화유물을 유적과 유물로 이원화하여 지정·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의 내용에서 한 단계 더 세분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1998년경 기존의 지정체계를 국보유적, 보존유적,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로 일괄 정리하였다는 최근의 미확인 정보와 부합한다.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중앙·지방 기관은 다음과 같다. 중앙에는 문화성 산하에 문화유물유적보존관리국을 두고 지방에는 문화유적관리소를 두고 있다. 행정기관과 함께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회과학원 산하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를 설치하고 각 도에는 역사박물관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대학의 「인류발전사연구실」등 각 대학의 관련 연구소가 조사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명승지·천연기념물 보호사업에 관한 사항은 내각의 지도하에 중앙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이 담당한다고 한다.

3.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 문화재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내의 여러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의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고 있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북한이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고증과 검토 없이 체제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역사를 날조 하는 등 북한의 문화재 상당수가 무분별하게 복원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북한이 문화재를 본격적으로 보수·복원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구소련의 붕괴와 급격한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붕괴는 북한에게 다시금 '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게끔 만들었고, 이에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체제가 붕괴된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통문화 및 문화재 발굴과 보존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북한은 1990년대에 평양에 정권의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평양지역의 유적발굴과 복원에 전력투구하기에 이른다. 즉, 정릉사(평양시 역포구역)는 1993년 복원되었는데, 고구려 시대 동명왕릉의 능찰로 터만 남아 있던 것을 1991년부터 동명왕릉과 함께 복원 공사에 착수했다. 정릉사지의 삼금당 팔각당탑 터에 최신의 깨끗한 화강석으로 팔각석탑을 올리고 삼금당 자리에 증금당(보광전), 동금당(용화전), 서금당(극락전) 등의 전각을 세우고 증금당(보광전) 내에 불상을 일본 나라현 아스카데라(飛鳥寺)의 불상과 흡사하게 만들었다. 초기 고구려 불교 사찰의 내용과 맞지 않는 건물과 불상 배치로 원형과 괴리된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재까지도 사찰로서는 전혀 기능하지 않고 동명왕릉 참배객들에게 보여 주는 관광자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동명왕릉의 복원에 있어서도 고려 공민왕이나 신라 말기에 나타나는 12지석을 호석과 석난간으로 돌리고 있고 거기에 정자를 세우

고 석인, 석상, 석사자를 만들어놓았다. 이것은 20세기말에 새로 만든 동명왕릉인 셈이다. 김일성이 국가적 사업으로 주도한 이 복원 사업에는 동명왕이 고구려의 시조임을 들어 북한이 고구려를 계승한 역사적 적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배어 있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문화재 보수 및 복원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보수나 복원 시 사용되는 원자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한 예로 단청을 사용해야 할 곳에 부분적으로 페인트를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지붕의 기와가 무너져 내려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목조문화재 수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목조문화재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최근에 조계종 총무원이 발간한 《북한의 건축문화재》(2006)에서 드러나기도 하였다.

북한의 문화재 보존 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도면 작성 등 기록관리가 부실해 훼손된 문화재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모조품 제작으로 모조품이 진품으로 둔갑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문화유물의 도굴이나, 유실·유출문제가 또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한편 도굴문화재의 해외 밀반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남한·일본 등으로 북한문화재가 밀반출되기 시작하여 1989년 평양축전 이후 확산되었으며 1990년대 이전에는 당 및 정부기관, 군부대, 사회단체 등이 조직에게 할당된 외화벌이 할당량을 채우는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군부대

까지 동원돼 개성 인근에서 고려자기를 발굴하기도 했으며 무역회사, 합영회사, 상사, 공사 등의 이름을 가진 의화벌이 대외무역기구를 창구로 반출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재 유출이 금지되자 주민들이 보관 중이던 문화재가 거래업자들에 의해 밀반출되기 시작하였으며 개성 인근, 황북, 평남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도굴이 성행하게 되었다. 도굴 문화재는 군·경 및 정보기관의 비호 아래 거래업자가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비밀리에 반출하고 있으며 고려증기·조선 시대의 도자기, 고서화 등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문화재는 북한만의 문화재가 아니라 한민족 공동의 문화재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공동의 자산으로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점이 문화재 보호를 위한 남북한 협력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II.

북한의 문화재 현황



1. 선사유적
2. 고구려 고분 및 고분 벽화
3. 고려시대 왕릉
4. 석조물
5. 고건축
6. 금속공예 및 도자기, 회화
7. 무형문화재
8.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



북한의 문화재 현황

북한의 문화재 실태

II.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유적 193건, 보존유적 1,723건, 국보유물 83건, 준국보유물 121건, 명승지 223건, 천연기념물 467건이다.

이 중 목록이 확인된 193건의 국보유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건축물이 113건, 농묘유적이 25건, 석조물이 41건, 기타 요지·우물·범종·불상 등이 14건으로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건축물은 다시 일반건축 68건, 사찰건축 45건으로 대별된다.

일반건축은 궁궐, 관아, 서원, 향교, 문루, 정자, 사묘, 주거 건축을 포함한다. 그 중에는 관방유적인 성곽, 문루 등이 43건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밖에 서원, 향교, 관아, 궁궐, 일반가옥 등이 23건이다. 성곽유적은 평양지역의 평양성, 대성산성, 청암리산성을

비롯하여 룡오리산성, 백마산성, 황룡산성, 자보산성, 태백산성, 영변 철웅성, 안주성 등으로 대부분 고구려시대에 축성된 것이다. 이들 산성들은 험한 지형과 평야, 큰 강을 낀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방어력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뛰어난 축성술을 보여주고 있다. 문무는 대부분 고려·조선 시대에 초창되고 16세기 이후 증건되었다. 관아건축으로는 강계아사와 공민루가 포함되었다.

사찰건축은 총 45건이 국보유적으로 지정되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 불교사찰 건축물을 국보유적으로 지정한 것은 이들 건축물에 인민대중들의 우수한 재능과 근면한 노동이 스며들어 있어 민족문화유산으로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기치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고구려 시대에 창건된 유적이 7건 있는데 그 중 정릉사, 금광사, 광법사, 용화사는 모두 터만 남아있고 건축물은 남아 있지 않았다. 정릉사와 광법사의 경우에는 중심구역을 복구하였다. 그 밖의 사찰들 중 고려시대 개창된 것은 강서사, 자혜사, 영산전, 용화사 등 8건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조선시대 개창되고 후에 개축되거나 증축되었다.

고분유적으로는 고조선 시기의 유적을 집중 조사하여 이른바 단군조선이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에 평양을 중심으로 대동강 유역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고대국가의 하나로 청동기 문화에 기초하여 형성된 신진문명임을 자부하기 위해 발굴 복원한 단군릉을 비롯하여 고구려의 동명왕릉, 고려의 왕건릉이 포함되는데, 이는 고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북한정권의 정통성 확립의 표석이 되고 있다. 또한 고구려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의 양상과 위상을 판단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고구려 고분과 고분벽화가 다

수를 차지한다.

석조물은 탑 16건, 비석 10건, 기타 당간지주, 불상, 석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 고려시대 축조된 것이다.

북한의 국보유적 유형별 분류표

구 분	현 황	비 고
일반건축	68건	궁궐, 관아, 문루, 성곽, 서원, 향교, 일반기옥 등
사찰건축	45건	사찰, 암자, 절터 등
고분유적	26건	고인돌, 왕릉, 벽화고분 등
석조물	41건	탑, 부도, 당간지주, 마애불 등
기타	14건	주거지, 요지, 우물, 기타(범종, 불상)
합계	193건	

이들 국보유적의 지정은 동일한 유적이거나 동일 유적내의 건물이나 유물이 각기 고유번호로 지정되어 한 유적 내에서 단일문화재로 각각 지정된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현사의 경우 단일 건물 2동과 탑, 비석 등 모두 7건이 국보유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밖의 보현사 증건비 및 사적비, 설암설봉선사 묘행산 보현사비명, 명산전 불향탑비 등 5건이 보존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화사의 경우에는 탑과 비석 2건이 각각 지정되었다. 또한 자혜사의 경우에도 오층석탑과 석등이 모두 지정되었다. 영통사는 비와 탑, 새로 복원한 사역을 각각 국보유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당간지주, 동서 3층탑 등 3건을 보존유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지정된 내용 중에는 최근의 발굴 성과를 반영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1996년 11월부터 1997년 5월 사이에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평양시 용성구역 화성동에서 고조선 시기의 제단유적 2기를 새

로 조사 발굴하였는데 이를 국보유적 제 188호 화성동제단 유적으로 지정하였다. 이것은 단군에 대한 북한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국보 지정 대상에는 최근 복원한 유적도 포함하였다. 정릉사 8각7층 석탑과 광법사 8각5층 석탑은 원래 목탑으로 터만 전해오던 것을 김일성의 교시로 석탑으로 새롭게 복원하여 국보유적 제184호, 제185호로 지정하였다. 황남 구월산에 환인(桓因)·환웅(桓雄)·환검(桓儉: 단군) 세 성인을 제사 지내던 사당으로 일제 때 불에 타 없어지고 그 터만 남아 있던 삼성사(三聖祠)에 2000년 9월 삼성전(三聖殿)을 복원하여 지정하기도 하였다.

신라 법흥왕 5년(519년)에 창건된 사찰로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와 더불어 금강산 4대 사찰로 알려진 국보유적 제191호 신계사는 남북 불교계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원불사를 시작하여 그해에 대웅보전을 비롯하여 2006년까지 만세루, 극락전, 어실각, 나한전, 축성전, 칠성각, 산신전, 범종각 등 10개 주요 전각을 봉행하였다.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인 대각 국사 의천이 개창한 천태종의 시조, 국보유적 제192호 영통사 또한 남한의 천태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1998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 10월에 복원하였다. 제193호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때 정문부(鄭文孚)를 대장으로 한 함경도 의병의 전승을 기념한 전공비로 1905년 러일전쟁 때 함경지방에 진출한 일본군 제2예비사단 여단장 소장 이케다 마사스케(池田正介)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되어 '군국일본'의 상징인 도쿄(東京)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 방치되었던 것을 반환운동을 통해 2005년 10월 20일에 한국으로 반환되어, 2006년 3월 1일에 비석의 원래 자리인 북한 함경북도 길주에 복원되었다.

다음에는 각 유적별 개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선사유적

북한의 선사시대 연구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선사시대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정립되어 있어 1940년대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연구된 신석기시대에 관한 첫 보고서 「공산 원시 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2집, 과학원출판사)가 1957년에 발표되었다. 북한에서는 특히 선사문화와 원시문화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1963년 사회과학연구소에 의해 선사시대의 지표와 주거지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여기서 굴포리 유적이 구석기 문화유적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유적에서 밀개석기 한 점을 찾아내어 구석기 문화라고 단언하고 이곳 문화를 '굴포문화'로 명명하였다. 이 발굴은 우리나라 사람 손에 의해 발굴된 첫 번째 구석기 유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석기 시대부터 원삼국 시대까지 내려오는 평양시 사동구역 미림지 유적, 금탄리 유적, 평안남도 온천군의 증원리·궁산리 유적, 평안북도 정주군 대산리 유적, 당산 원시 유적, 함경북도 나진군 초도 원시 유적 등 원시시대, 소위 선사 유적지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와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여 차이가 있다. 북한은 굴포 유적 다음에는 평양 쪽으로 연구 방향을 돌려 상원 검은모루동굴의 발굴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승리산 유적, 평양 반달리 유적의 발굴이 그것인데 이는 우리보다 자신들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함이었다. 북측의 수도인 평양에서 상원 검은모루동굴을 조사

하고 6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으며 여기서 뻗어나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평양의 동굴 유적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면서 기술적인 연구를 발전시키고 또 사람 뼈에 큰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시켜왔다.

구석기 시대의 연구에서 맥락이 이어져 오면서 신석기 시대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신석기 시대의 연대를 기원전 4천년에서 5천년까지 올려놓는 과감한 신석기 시대의 연대 제시 등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었다고 제시하는 등 우리보다 더 앞서 신석기 시대에 대해 해석, 관찰하였다. 또한 청동기 문화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직 금석병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들은 이미 50년대부터 청동기라는 말과 문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특히 시대 구분에 있어서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원삼국 및 삼국시대로 분류하는 우리와는 달리 원시공동체사회(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노예소유사회(고조선, 부여, 진국), 봉건사회(삼국)로 구분하고 있다. 초기철기 시대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조선 시대를 시대 구분에 넣고 있으며, 또한 청동기 시대의 상한 연대를 우리 보다 훨씬 올려 보고 있어 역사 편년의 기본적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1) 구석기 시대

북한의 구석기 시대 유적은 15곳에 달하는데 거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석회암동굴 유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평양시의 용곡리(龍谷里) 유적, 검은모루(黑隅里) 유적, 대현동(大峴洞) 유

적과 만달리(萬達里) 유적 그리고 평남 덕천 승리산(勝利山) 유적을 들 수 있다.



〈그림 4〉 검은모루 유적 _ 구석기시대
(60~40만 년 전)

이러한 북한의 구석기 유적의 특징은 석기보다 코끼리, 큰쌍코뿔소, 짧은 턱 하이에나, 오소리, 노루, 사슴 등의 많은 동물 뼈 화석과 두개골을 비롯한 인골화석들이 출토된 것을 들 수 있다. 즉, 북경원인(北京原人)과 같은 40~50만 년 전의 전기 구석기로 보는 용곡리 유적의 용곡인(龍谷人) 인골에서부터 대현동 유적의 역포인(力浦人), 승리산 유적의 승리산인(勝利山人)과 덕천인(德川人) 그리고 만달리 유적의 만달인(萬達人)으로 명명된 중기·후기구석기에 이르는 인골화석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검은모루 유적에서 나온 주먹도끼, 굽개 등의 석기도 중국 주구점(周口店)에서 출토된 전기 구석기 유물과 같은 시대로 비정한다. 이밖에 평양 근처 청청암과 금천, 내리, 화천동의 동굴유적 및 평남 금평리, 함남 다천리 등의 구석기 유적들을 들 수 있다.



〈그림 5〉 와문토기 _ 기원전 3,000년경 후반기,
함북 굴포리 서포항 출토

(2) 신석기 시대

북한의 신석기 유적으로는 10여 곳이 발굴 조사되어 소개되고 있다. 함북 굴포리 서포항(屈浦里 西浦項) 유적, 평남 온천 궁산(弓山) 유적, 평양시 금탄리(金灘



〈그림 6〉 빗살무늬토기 _ 신석기시대(약 4,000~3,000), 황북 봉산 지탑리 유적

리) 유적, 평북 용천군 신암리(新巖里) 청동말래 유적을 비롯하여 황북 지탑리(智塔里) 유적, 평양 남경과 장촌(長村) 및 함북 청진 농포리(農浦里)와 무산 범의구석 [호곡(虎谷)] 유적이 주목된다. 이들은 모두 주거지(住居址) 유적인

점이 특징으로 화석을 갖추고 있으며 마제석기, 빗살무늬토기가 대표된다. 글포리 서포항 유적에서는 여성과 뱀, 말 등의 조각상이 출토되어 모계(母系)의 여성숭배 및 동물토텐을 증명해 주고 있다.

북한에서는 토기문양에 의해 신석기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면서 시대를 B.C. 6000~B.C. 2000으로 비정하고 있어 B.C. 1000년을 하한으로 하는 우리의 편년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뒤에 오는 청동기시대의 상한 연대도 B.C. 2000년이 되어 무리한 편년을 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3) 청동기 시대

북한은 청동기 시대를 B.C. 2000년부터 B.C. 1000년까지로 하고 있어 B.C. 1000년에서 B.C. 300년으로 잡는 우리와는 편년 상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에서는 청동유물보다 신석기 말기에 이미 나타나는 갈색 민무늬토기[無文土器]에 의해 시대 편년을 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초기철기 시대의 시작도 B.C. 1000년을 상한 연대로 보아 비파형 동검이 나온 요녕 유적이 청동기 시대가 아닌 초기철기 시대로 편년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그림 7〉 미송리항토기 _ 청동기시대
(기원전 8~7세기), 경북의주 미송리 송토



〈그림 8〉 노암리고인돌 _ 청동기시대, 북보유적 76호

북한의 청동기 시대 중요 유적으로는 글포리 서포항 유적, 무산 범의구석 유적, 용천 신암리 청동말래 유적, 평양시 금탄리와 남경 유적, 나진 초도 유적 등의 신석기 위층에 위치한 유적층을 비롯하여 황북 신흥동과 황주 침촌리(沈村里), 북청 토성리(土城里), 함남 금야(金野) 유적, 강계 공귀리(公貴里) 유적, 의주 미송리(美松里) 유적 등의 주거지 유적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무덤유적으로 황주 침촌리와 황북 오산리, 남포 석천산 일대의 고인돌 유적 및 황남 은을 관산리, 안악 노암리 고인돌 유적과 사리원시 상매리 돌널 [석곽묘(石槨墓)] 유적이 대표된다.



〈그림 9〉 다뉴세문경 _ 기원전 3~2세기,
조선중앙학사박물관

(4) 고조선 시대

북한은 B.C. 1000년을 철기 시대의 시작으로 잡고 이 시기부터 고조선, 삼한 등의 노예소유사회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고조선을 B.C. 8~7세기에서 B.C. 108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철기가 나오지 않는 비파형 동검의 요령 유적을 이 시대에 속

한 것으로 보고 있어 모순을 낳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B.C. 4세기경을 초기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서 고조선을 B.C. 3세기부터로 잡아 철기가 생산되고, 좁은뿔단검[세형동검(細形銅劍)]과 잔줄무늬거울[다뉴세문동경(多紐細文銅鏡)] 등 세형 청동제 유물의 발달기로 보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비정한 고조선시대 유적은 범의구식의 유적층과 평북 영변 세죽리(細竹里) 유적, 평북 박천 단산리(壇山里) 유적, 평남 대동 반천리(反川里) 유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청동기를 모방한 철제창, 철부(鐵斧), 쇠호미와 잔줄무늬구리거울 등이 나왔으며 세죽리 유적에서는 이때 이미 온돌이 있었음도 밝혀지고 있다.

최근 북한학계는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면서 1993년 단군릉을 개건하고 단군조선시기의 문화유산으로 여러 토성과 고인들에 주목하였으며 낙랑에 대하여도 고조선의 후국으로서 고조선을 계승한 우리 역사로 보고 있다. 이는 평양이 고조선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 유역이 인류 기원지의 하나로 한민족 발상지이고 세계 4대문명에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문명이 시작된 곳으로 역사의 정통이 남한이 아닌 북한에 있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함에 불과할 뿐이다.

2. 고구려 고분 및 고분벽화

북한지역에 분포된 많은 고구려 고분은 지역적, 시대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의 구조와 축조, 피장자와 부장품 및 벽화 등의 모든 내용은 당시의 정

치, 사회, 문화의 양상과 위상을 판단하고 이해하는데 귀중한 사료가 되며 시기와 지역에 따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고구려 고분의 특징

고구려 고분은 고구려가 일어난 중국 환인(桓仁) 및 집안(集安)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중류 북안 지역과 평양 쪽으로 내려온 후기의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대동강 남북 유역에 많이 분포하며 대동강 이북의 평양 일대에 벽화고분이 집중되어 있다.

이밖에 중국 우수림자하(榆樹林子河) 유역을 비롯해 압록강 중류의 남쪽 지류인 자성강(慈城江), 독로강(禿魯江) 유역 일대에도 12,000여기의 고분이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고분은 강변과 평지에도 있으나 대부분이 전망이 좋은 구릉 등에 위치하고 방향은 주로 남향, 서향, 서남향이다. 봉분형식에 따라 돌무덤[적석총(積石塚)]과 봉토분(封土墳)으로 나누게 되며 시대적으로는 돌무덤에서 봉토분으로 옮겨감을 볼 수 있다.

(2) 돌무덤[적석총(積石塚)]

돌무덤은 땅 위에 냇돌이나 자연석을 쌓아 봉분을 만들면서 밑쪽 또는 중간부에 석곽(石槨)이나 횡혈석실(橫穴石室) 등의 묘실을 마련해 관(棺)과 부장품을 넣은 무덤이다. 봉분은 위가 잘린 절두방추형(截頭方錐形)과 방대형(方臺形)이며 외형은 2~3단의 계단형이 기본이나 장군총(將軍塚) 같이 7단도 나타난다. 내부는 석곽(石槨),

연도부석곽(羨道附石槨), 횡혈식석실 등의 세 가지 형식이 있다.

석곽형은 땅 위의 1m쯤 높이에 자갈을 깔고 관이나 시체를 놓은 뒤 돌로 봉분한 형식으로 자갈 바닥의 네 쪽에 큰 돌을 쓴 장방형식도 있다. 석곽천장은 나무였거나 아예 뚜껑돌을 덮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연도부석곽 형식은 노남리(魯南里)의 고분에서 보이듯 석곽형식에 연도(羨道)를 형식적으로 갖춘 것이다. 횡혈식석실 형식은 연도 좌우 벽과 현실에 네 벽을 만들고 천장은 큰 판석을 덮은 형식이다.

(3) 봉토분(封土墳)

봉토분은 반지하나 땅 위에 놓인 횡혈식석실 위에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든 형식으로 거의가 방대형(方臺形)을 띠고 있다. 잔디를 입힌 봉토 속은 석실 둘레에 자연석을 쌓아 진흙을 덮은 위에 숯이나 석회를 깔 뒤 흙으로 성형하는 견고한 방법을 쓰고 있다. 2~3단의 돌기단을 갖춘 봉토분도 있는데 둘레는 자갈 또는 괴석을 깔고 정지하여 잔디를 입혔다.

횡혈식석실은 연도와 현실에 전실(前室)이나 측실(側室) 또는 작은 감실(소감실(小龕室))을 둔 구조이다. 벽은 자연석이나 치석(治石)한 큰 판석을 사용하여 수직 또는 곡면벽으로 세워 회칠을 하였으나 물갈음을 한 판석벽도 있다. 천장구조는 고구려 고분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1~2단의 고임돌 위에 큰 판석을 덮은 평천장형식과 안쪽으로 기울게 한 궁륭(穹隆) 천장형식, 특히 대표적 특징인 네 모서리를 삼각고임돌로 모출임해 좁아지게 짜 올린 끝에 큰 판석 뚜껑을 덮은 모출임[말각조정(抹角藻井)] 천장형식이 있다. 이

밖에 내부에는 관대(棺臺), 석비(石扉), 석주(石柱), 배수시설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4) 벽화고분(壁畵古墳)

북한에 소재한 고구려 고분군은 총 63기로, 그 중에는 벽화고분이 16기 포함되어 있으며, 2004년 7월 유네스코 제28차 세계유산 위원회(WHC)는 고구려 고분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다.



〈그림 10〉 주인공상 _ 안악3호분, 고구려(4세기중엽)



〈그림 11〉 부인상 _ 안악3호분, 고구려(4세기중엽)

고대 동북아 최대 강국으로 위상을 드높였던 고구려는 유례없는 다채로운 고분벽화를 남겼다. 고구려 고분 중에서도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벽화고분은 다양한 벽화의 내용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 문화상을 정확히 알리고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고대의 역사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고구려 고분벽화는 고구려인의 기질과 기상, 미의식과 색채감각, 생활모습과 풍습, 종교관과 우주관에 걸친 사상, 외국과의 교류 모습에 이르기까지 고대 고구려의 생생하고 다양한 문화적 양상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벽화고분은 모두 봉토분(封土墳)으로 방대형(方臺形)을 하고 있으며 내부는 횡혈식석실 구조를 한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벽화는 회칠된 벽면과 천장에 그려지나 강서대묘나 증묘 같이 물갈음된 판석벽면에 직접 그려지기도 한다. 벽화내용은 인물, 풍속, 산수, 동식물, 성신도(星辰圖), 건축의장(建築意匠)과 꽃, 구름 등을 비롯한 각종 문양 및 선인(仙人) 등이 주 그림과 부속그림으로 나타나 있어 다양하고 풍부하다. 이들을 주제별로 보면 인물풍속화, 인물풍속화와 사신도(四神圖), 그리고 사신도만을 표현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주제의 변천과정을 통해 고구려 고분 벽화를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2〉 13군태수 허례도 일부(十三郡太守許禮圖 一部) _ 덕흥리 고분, 고구려(5세기초)



〈그림 13〉 덕흥리 벽화고분 외부전경

먼저 초기(4~5세기)의 특징인 인물풍속벽화는 안악3호분(357년 경), 덕흥리 고분(408년)에서 보듯 무덤 주인의 초상과 생활내용 및



〈그림 14〉 시녀도 _ 수신리벽화고분, 고구려(5세기)

의장행렬, 수렵 등을 중심으로 표현한 화려한 벽화고분이다. 중기(5~6세기)의 벽화는 무덤 주인의 일대기와 풍속 및 사신도가 함께 나타나는 시기로 개마총(鎧馬塚, 6세기초)을 비롯한 여러 예가 있다. 후기(6~7세기) 벽화는 동 청룡(東靑龍), 서 백호(西白虎), 남朱雀(南朱雀), 북 현무(北玄武)의 사신도가 벽화의 중심이 되는 시기로 강서증묘, 강서대묘

(7세기초)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때에는 예술성이 뛰어나고 다채로운 장식무늬가 사신을 감싸듯이 표현되고 있다.



〈그림 15〉 문자지도 _ 약수리벽화고분, 고구려(4~6세기)

이처럼 고구려 고분벽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제나 내용면에서 점차 번거로운 것을 피하고 단순화되어 갔으며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초기의 고졸(古拙)한 것으로부터 점차 세련되고 능숙한 것으로 발전하여 갔다.

우리는 이들 고분벽화를 통하여 고구려인들의 기질과 기상, 미의식과 색채감각, 인물, 산수, 동물, 식물, 기타 주제들을 다룬 회화의 특징과 변천, 생활과 풍속, 복식과 관모, 건축과 내부 장식, 가구와 집물 등은 물론 묘제와 우주관, 종교와 사상, 음악과 무용, 외국과의 교류 등 수많은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살펴볼 수 있겠다.



〈그림 16〉 현무도 _ 강서대묘, 고구려(7세기초)



〈그림 17〉 청룡도 _ 강서대묘, 고구려(7세기초)

3. 고려시대 왕릉

고려시대 왕 및 왕비릉 또한 개성시를 중심으로 주변 약 6~8km 범위에 분포해 있다. 무덤은 무선봉의 나지막한 산중턱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고려 31대 왕인 공민왕의 무덤은 현릉(공민왕의 무덤)과 정릉(황비의 무덤)이 쌍분으로 나란히 서있는데, 1365년~1372년에 공민왕 자신이 직접 감독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공민왕릉의 무덤구역은 동서로 긴 장방형의 세 층단과 그 아래에 비탈진



〈그림 18〉 공민왕릉 근경



〈그림 19〉 공민왕릉 전경 _ 고려 1365~1374 출토, 국보유적 123호

넓은 층단으로 이루어졌다. 제1층단의 크기는 동서 40m, 남북 24m이다. 현릉과 정릉은 제1층단 가운데에 있다. 무덤봉분의 높이는 약 6.5m이며 그 대각직경은 13.7m이다. 병풍돌의 면적에 부각한 12지신상을 얹고 구름을 탄 모양으로 형상화 하였다. 무덤 앞에는 큰 북 모양으로 된 받침돌을 받쳐 놓은 상석이 있고 그 길이는 3.36m, 너비는 1.82m, 두께는 0.45m이다. 무덤의 앞면 좌우 끝에는 6각으로 된 키 높은 망주석을 세웠다. 무덤의 둘레에는 빙 돌아가며 양과 범을 형상한 돌조각을 서로 엇바꾸어 놓았다. 제2층단은 제1층단보다 1.2m 낮게 남북 6m, 동서 46.5m의 크기이며 석등과 문무인상을 배치하였다. 현릉의 무덤칸은 무덤 연도와 현실(玄室)로 이루어져 있고 현실은 질 좋은 화강암 판돌로 쌓고 평천정을 얹었으며 현실 동, 서, 북 세 벽면과 천정에는 12지신의 벽화를 그렸다. 천

정에는 북쪽에 북두칠성을, 남쪽에 한 쌍의 삼성을 그렸으며 북두칠성의 동남쪽에 해를 그렸다. 공민왕릉의 무덤형식은 고려 말기의 능 형식을 대표한다.

4. 석조물



〈그림 20〉 보현사 8각 13층 석탑 _ 고려(1024)



〈그림 21〉 금강암 사자지 석탑 _ 고려산, 국보유적 100호

석조물은 탑 16건, 비석 10건, 기타 당간지주, 불상, 석등 등을 포함하여 41점이 국보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부분 고려시대 축조된 것으로 지역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석탑은 고려시대에 건립된 것이 대부분이며 개성을 비롯한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현사의 8각 13층 석탑(1024년)과 9층 석탑, 불일사(佛日寺) 5층 석탑(951년), 흥복사(弘福寺) 6각 7층 석탑, 현화사(玄化寺) 7층 석탑(1020년), 흥국사(興國寺) 석탑(1021년), 관음사 7층 석탑과 금강암(金藏菴) 4사자 3층 석탑 및 화장사(華藏寺) 지공선사탑(1370년경), 장연사 3층 석탑, 학림사 5층 석탑, 영봉사 5층 석

탑 등이 고려 석탑으로 중요시된다. 특히 석탑의 평면형태가 다른 시대와 달리 육각과 팔각 등 다각형 평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색으로 지방적 특색과 함께 주목된다.

북한에만 보이는 석당(石幢)은 높이가 6m나 되는 평북 용천 성동



〈그림 22〉 성종리 다라니석당 _
고려 초기(1027)
국보유적 69호



〈그림 23〉 중흥사 당간지주 _
고구려, 국보유적 147호



〈그림 24〉 묘길상과 석등 _
고려, 국보유적 102호

리 다라니 석당(1027년)이 대표적인 것으로 8각 화강암 기둥에 다라니경이 가득 새겨져 있다. 당간지주(幢竿支柱)는 평양 중흥사(重興寺)와 개성의 영통사(靈通寺), 현화사의 것이 알려져 있는데 현화사의 당간지주는 높이가 4.73m나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석등(石燈)은 금강산의 정양사(正陽寺)와 자혜사, 묘길상(妙吉祥) 앞 고려 석등이 대표된다.

석비(石碑)는 황초령, 마운령의 진흥왕순수비를 비롯한 11기가 알려져 있는데 광조사 진철대사비(937년), 오룡사 범경대사비(944년), 영통사 대각국사비(1125년)와 광통사 보제선사비(1377년) 등 고려의 승려탑비[부도비(浮屠碑)]가 많다. 특히 현화사 사적비(玄化寺事蹟碑, 1022년)는 형식과 문양에 있어 대표적인 석비이다. 또한 성장 김



〈그림 25〉 황초령진흥왕순수비 _
신라, 국보유적 110호



〈그림 26〉 마운령진흥왕순수비 _
신라(968), 국보유적 111호



〈그림 27〉 북관대첩비 _
조선(1709), 국보유적 193호



〈그림 28〉 영명사 8각 석불감 _ 고려, 국보유적 148호



〈그림 29〉 고려 천성대 _ 고려, 국보유적 13호



〈그림 30〉 개성 선죽교 _ 고려 중기, 국보유적 169호

성업의 치적을 새긴 비석(1879년)과 임진왜란 때 정문부(鄭文孚)를 대장으로 한 함경도 의병의 전승을 기념한 전공비인 북관대첩비가 일본에 반출되었다가 반환되어 2006년 3월 원래 위치인 길주에 복원되었다.

그밖에 개성의 선죽교(善竹橋)와 첨성대, 용두(龍頭) 그리고 해주 석빙고(石氷庫), 용천 해태형 석수 등을 비롯하여 안양암 마애삼존불상과 온정리 마애불입상, 관음사 대리석관음보살상, 우리나라 최대의 마애불인 금강산의 묘길상(높이 15m)과 봉래동 마애삼존상 및 영명사(永明寺) 8각 석불감(石佛龕) 등의 중요 석조 유물이 남아 있는데 모두가 고려시대 유물인 것이 특징이다. 선죽교(善竹橋)는 개성 자남산(子南山) 동쪽 기슭의 작은 내에 놓인 길이 6.67m의 고려 초기 다리이다. 1780년 개성유수가 정몽주(鄭夢周)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옆에 새로 다리를 놓고 원래의 다리에는 없던 돌난간을 돌려 보호하고 있다. 옆에 선죽교라 새겨진 비석의 글씨는 한석봉(韓石峯)이 쓴 것이다.

5. 고건축

북한지역의 고건축은 성격상 크게 일반건축과 사찰건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건축

일반건축은 궁궐, 관아, 서원, 향교, 문루, 정자, 사묘, 주거건축을 포함한다. 그 중에는 관방유적인 성곽, 문루 등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밖에 서원, 향교, 관아, 궁궐, 일반가옥 등이 포함된다. 성곽유적은 평양지역의 평양성, 대성산성, 청암리산성을 비롯하여 룡오리산성, 백마산성, 황룡산성, 자모산성, 태백산성, 영변 철용성, 안주성 등으로 대부분 고구려시대에 초축되고 후에 다시 개축되었다. 문루는 보통문, 대동문, 칠성문, 을밀대, 청류정, 부벽루, 백상루 등이 있고, 관아건축으로는 강계아사와 공민루 등이 있다.

① 궁궐건축



〈그림 31〉 안학궁터 _ 고구려 457~598, 국보유적 2호

궁궐건축으로는 고구려 궁궐인 평양의 안학궁터(安鶴宮址)와 고려궁궐 만월대터(滿月臺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유적은 현재 정연하게 정비되어 있는 실정이다.

1967년부터 1970년까지 발굴 조사한 안학궁터는 국내성(國內城)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세운 고구려 왕궁터이다. 안학궁은 폭 8.8m의 두터운 성벽으로 둘러싸인 정방형 궁궐로 한 변이 약

620m이고 둘레가 2,488m, 면적이 38만㎡나 되며 남북중심축 상에 남궁·중궁·북궁을 두고, 동궁·서궁을 그 좌우에 두었는데 현재 52채의 건물터가 확인되었다. 속에다 진흙을 다져 넣은 돌성벽은 4대문과 각루(角樓)를 갖추었으며 궁 안은 인공산과 물을 끌어들이던 연못, 호수 등으로 화려하게 꾸몄고 궁밖에는 동서로 해자(孩子)가 있었다.



〈그림 32〉 만월대 화강전터 개단 _ 고려 919 유성 /
고려 1361 소성, 국보유적 122호



〈그림 33〉 만월대 화강전터 전경

고려궁궐 만월대터는 개성시 송악동에 있는 고려시대의 왕궁터로, 만월대에는 후삼국시기 태봉국의 왕궁이 건설되기도 하였다. 태봉국은 여기에 발어참성을 쌓고 수도를 철원으로부터 이곳으로 옮겨 8년 동안 지냈다. 고려가 건국하고 이어서 발어참성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고려는 919년 만월대를 건설하여 왕궁을 매우 화려하게 건축하였으며 강화도에 도읍을 일시 옮겼던 40여 년 간(13세기 중엽)을 제외하고는 고려 왕조의 기본왕궁으로 이용하였다. 고려왕궁의 면적은 125만㎡에 달하며 궁성과 그 남쪽에 있던 황성으로 나누어지고 궁성의 면적은 약 37만㎡이다. 왕의 궁전들이 있던 궁성과 중앙관청들이 있던 황성을 합한 고려왕궁의 바깥 성벽은 발어참성의 원래 성벽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였다. 왕궁의 동쪽 벽과 서쪽 및 남쪽 벽은 발어참성의 동쪽과 서쪽 및 남쪽 벽을 그대로 쓰고 다만 왕궁의 북쪽 벽만 만월대의 북쪽 언덕을 따라 새로 쌓았다. 황성의

정문은 동쪽에 나 있었는데 그것을 광화문이라고 불렀다. 만월대유적도 바로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

최근 남한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가 개성역사지구 남북공동발굴조사의 진행에 합의하여 개성 만월대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② 관아건축



〈그림 34〉 함흥관공 정전 _ 조선 초기 조축 / 조선 17세기 말 중건 / 근대 복원, 국보유적 107호



〈그림 35〉 함흥관공 정전 내부

관아건축은 조선시대 8도에 관찰사를 두어 지방행정을 총괄하였고 관찰사가 있던 관아를 감영(監營)이라고 하여 각 도마다 한곳씩 두었다. 감영은 지방행정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고을의 중심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객사건물도 기능상 관아건물과 인접하여 배치된다. 관아건축으로는 함흥 선화당(1410년), 단천 아사 공민부



〈그림 36〉 강계아사 _ 조선 초기 1401 조축 / 조선 중기 1663 중건 / 조선 후기 1968 재건, 국보유적 66호

(1438년), 강계 아사(1663년) 등이 있다. 관아건물은 감영의 본관으로 관찰사가 집무를 보는 곳으로 선화당으로 부르는 정청(政廳)이 중심부의 남북 중심축 선상에 있고, 사무청, 창고 등이 전면에 배치된다.

객사는 지방관제가 제도화되면서 증양집권화의 확립에 따라 부, 목, 군, 현, 진 등에 만들어진 국가의 상징적인 건물이다. 객사는 국왕을 상징하는 위패를 모시고 임금에게 향궐망배(向闕望拜)하는 곳으로 임금이 대한 충성과 목민관으로서의 소임을 다짐하던 곳이다. 또한 증양에서 파견된 관리들을 맞아 이들의 숙식과 연회 등을 위한 곳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증양에서 파견된 관찰사가 재판정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곳이다. 안변객사의 가학루(駕鶴樓, 1486년)는 누각이 정문으로 사용된 형태로 특징적이다.

③ 서원건축

서원은 조선시대 유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생겨난 사립교육기관으로 서원의 건립은 대부분 주향(主享)으로 모신 유학자와 연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건립되며 유학자 자신이 직접 학당을 짓고 강학하던 곳 또는 서당 등이 근본이 되어 설립된 경우도 있다. 북한의 서원은 승양서원과 용곡서원, 소현서원 등이 대표적이다.

승양서원은 정몽주가 거처하던 집터에 건축된 것으로 1573년(선조 6년) 개성 우수였던 남응운(南應雲, 1509~1587)이 정몽주(鄭夢周, 1337~1392)와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문충당을 짓고 정몽주를 주향으로 두었으며 1575년(선조 8년)에 선조로부터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다. 건물배치는 좌우 대칭으로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의삼문을 들어서면 강당과 동재, 서재 그리고 의삼문으로 이루어진 강학영역(講學領域)과 내삼문과 사당으로 구성된 제향영역(祭享領域)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곡서원은 조선 1658년(효종 9년) 돈암 선우협(豚庵 鮮于浹, 1588~1653년)을 추모하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하여 창건된 서원으로



〈그림 37〉 용곡서원 전경 _ 조선(1713)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38〉 소현서원 전경 _ 조선 1575 초축 / 조선 1604 개축 / 근대 복원, 국보유적 79호

이황을 모셨다고 한다. 1610년(광해군 2년) '소현서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액을 받으면서 중창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상당부분 파손되었다가 최근에 복원하였다.



〈그림 39〉 개성 성군관 전경 _ 고려 992 초축 / 조선 1474 중수 / 조선 1592 소실 / 조선 1602 개축, 국보유적 127호

로 1683년(숙종 9년)에 사액을 받았다. 문루(강당을 겸함)와 양재로 이루어진 강학영역과 내삼문과 사당으로 이루어진 제향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비각이 제향영역 안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의 고저차로 인하여

소현서원은 '척담구곡'의 경치 좋은 곳으로 이름난 은병에 자리 잡고, 율곡 이이가 1575년(선조 8년) 이곳에 '청계당'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1586년(선조 10년)에 사당을 건립하면서 이이를 비롯하여 주희, 조광조,

④ 사묘건축

사묘(祠廟)는 선인의 신위 혹은 영정을 봉안하고 일정한 시기를 택하여 제향을 봉행하는 사당 또는 묘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건축을 사묘건축이라고 한다. 성군관 및 향교의 대성전, 종묘의 정

전, 영녕전, 서원의 사당 등이 사묘건축에 속한다. 사묘건축은 중심 건물인 사당 이외에 부(廡), 수복청(守僕廳), 이안청(移安廳), 신주(神主)를 옮기는 일을 담당하는 곳, 재실(齎室), 전사청(典祀廳), 향대청(香大廳) 등이 있다.

⑤ 문루건축

문루는 전시에는 격전하는 전투의 기점이면서 군사를 지휘하는 장대(將臺)의 역할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읍성의 출입구로서 위엄을 상징하고 동시에 높이 솟은 누각은 풍류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그림 40〉 보통문 _ 고구려 6세기 중엽 조축 / 조선 1473 개축, 국보유적 3호



〈그림 41〉 대동문 _ 고구려 6세기 중엽 조축 / 조선 1635 개축, 국보유적 4호

평양성의 칠성문과 현무문, 전금문은 성문 좌우의 성벽을 엇갈리게 배열하여 그 사이 공간에 성벽과 직각으로 성문을 놓는 암문(暗門)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는 고구려의 성문형식으로 특징지어지기도 한다. 개성 남대문과 평양의 보통문은 모두 초기의 건축형식을 잘 유지하고 있고 평양 대동문은 조선 후기 중층구조의 가구형식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경성 읍성 남문과 철용성 남문은 문루가 놓이는 부분의 성벽을 좌우의 성벽 보다 한층 뒤로 돌림으로써 좌우의 성벽이 자연스럽게 성문을 보호하는 치(雉)가 되도록 처리한 점도 흥미롭다.

⑥ 누정건축

누정은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명승지나 성곽, 궁궐, 사찰, 객사, 서원, 관아 등을 비롯한 정원시설의 요소로서 필수 불가결한 시설물로 건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전망 좋은 곳에 지어져 휴식과 위락의 성격뿐만 아니라 자연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부가하기도 한다. 조선조 유학의 영향으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한다는 생활철학이 정신적 바탕을 이루었고 특히 선종이 한국 불교의 주류를 이루면서 자연과의 조화가 생활화되어 정자(亭子)와 더욱 친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42〉 연광정 _ 고구려 6세기 초축 / 고려 1111 중축
/ 조선 1860 개축, 국보유적 16호

북한 지역에는 누정도 상당히 많이 보인다. 평양 대동강변에 세워진 연광정(練光亭)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어우러져 관서팔경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연광정에는 ‘天下第一江山’, ‘第一樓臺’, ‘萬和樓’란 현판이 전해지고,

고려 때 시인 김황원(金黃元, 1045~1117)이 부벽루에 올라 대동강을 바라보면서 쓴 시의 편액도 전한다. 1670년 중건하였다.



〈그림 43〉 청류정 _ 고구려 초축 / 조선 1716 중축 / 1959 개축, 국보유적 20호

청류정(淸流亭)은 평양시 금수산 청류벽 위에 세워져 주변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한 누정이다. 원래 이 청류정 건물은 고구려시기에 처음 세워지고 조선 시대에 다시 세워졌는데, 다시 세운 건물은 평양성 내성의 서문인

정해문(丁亥門)의 문루를 옮겨다가 누정으로 세운 것이라고 한다. 정해문은 1716년(숙종 42년)에 증수되었다고 한다.



〈그림 44〉 최승대 _ 고구려 6세기 초축 / 조선 1716 개축, 국보유적 21호

최승대(最勝臺)는 평양시 금수산의 제일 높게 솟은 봉우리인 모란봉에 있는 누정이다. 원래 이 자리는 6세기 중엽에 축조한 고구려 평양성의 북성 북쪽 장대터였다. 조선 후기인 1714년(숙종 40년)에 평양성 수축공사를 하면

서 이 자리를 10m가량 돌고 봉화대를 설치하였고 1716년(숙종 42년)에는 산마루에서 약 60m가량 내려온 양지바른 곳에 오승대라는 누정을 세웠는데, 여기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여 이 누정의 이름을 최승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1849년 누정이 다시 세워진 이후 여러 차례 보수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림 45〉 부벽루 _ 고구려 393 초축 / 조선 1614 개축, 국보유적 17호

부벽루(浮碧樓)는 평양 금수산 모란봉 동쪽, 대동강가에 깎아지른 듯이 솟아오른 청류벽 위에 세워진 누정이다. 원래는 고구려 때인 393년(광개토왕 3년)에 세운 영명사의 부속 건물로 세워져 영명루라고 불렀다고 하며 고려시

대인 12세기에 이르러 대동강의 맑고 푸른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의 누정이라는 뜻에서 부벽루라고 부르게 되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1614년(광해군 6년)에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⑦ 성곽

가장 효과 있는 방어수단이 되는 성곽(城郭) 축조는 국가의 중요한 역사(役事)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성곽의 나라로 불릴 만큼 일찍부터 뛰어난 축성술에 의한 수많은 성곽이 있다. 기록상으로 처음 나타나는 성곽은 고조선의 왕검성(王儉城)이며 B.C. 2세기경에 축성한 것이다.

북한에 소재한 성곽 중에서는 고구려 성곽이 가장 특징적이고 삼국 중 가장 먼저 축성된 것이다. 초기의 국내성 일대에서 평양지역에 이르는 도성(都城)과 산성은 토성과 석성으로 축성되었다. 도성은 집안(集安)에 있는 평지의 국내성(國內城, 3년)과 산성인 환도성(丸都城, 209년) 및 내성(內城)과 나곽(羅郭)을 갖춘 평양성(427년), 5세기 초의 궁궐터인 안학궁성(安鶴宮城)과 그 진산(鎭山)에 있는 대성산성(大成山城)도 중요한데 이들은 모두 석성이다. 안학궁성은 평지성으로 4대문과 각루(角樓)를 갖추고 있으며 폭이 8.8m나 되는 두터운 성벽으로 되어 있다. 성벽은 속에다 진흙을 다져 넣어 축조한 것이 특징이다. 고구려의 성곽은 일정한 크기로 치석한 성돌로 평축(平築)기법을 써서 안정감 있게 축성하였고 치(雉), 웅성(甕城), 여장(女牆)과 장대(將臺) 등을 설치한 매우 발전된 방어기능을 갖추었다.



〈그림 46〉 황금산성 _ 고구려 조축 / 고려 919 편수, 문화유적 37호

그리고 고구려의 산성은 험한 지형과 평야, 큰 강을 낀 수륙교통의 요충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방어력을 높이도록 축성한 것이 특징이다. 평양 청암리토성(석성이 공존)과 평

남 용강군의 태백산성(太白山城), 황룡산성(黃龍山城) 등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림 47〉 영변 철옹성 _ 고구려 요술 / 조선 1416 개축, 1684 개축 1735 개축, 국보유적 63호

고려는 개성에 궁성을 세우고 북방의 고구려 강토회복을 위해 나성(羅城, 1029년)과 대흥산성(大興山城, 천리장성(千里長城), 고려장성(高麗長城, 1033~1044년), 서희(徐熙)가 축성한 평북 구성의 구주성(龜州城, 994년), 영변 철옹성(鐵甕城), 의주 임천성(臨川城) 등을 축성하였다. 고려후기에는 윤관(尹瓘)에 의한 동북방의 9성 설치를 들 수 있으며 또 각 지역에 읍성(邑城)이 나타나는 시발점이 되었다.

조선 시대의 북방지역은 고려 말의 의침을 거을삼아 행성(行城)의 축성이 중요시되었다. 왜구에 의한 연해읍성(沿海邑城)의 축성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위원읍성(渭原邑城, 1443년)과 같이 세종, 성종 때를 위시해 많은 읍성이 세워졌다. 나아가 임진왜란 후 특히 숙종, 영조 때에는 각지의 요로(要路)마다 관문(關門)이 많이 세워지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려의 산성형식을 계승하나 16세기 후반에 와서는 화포의 발달로 입보(入堡) 등에 따른 성곽의 새 변화가 있었다.

(2) 사찰건축

사찰건축은 총 45건이 국보유적으로 지정되었다. 종교를 인정하

지 않는 북한에서 불교사찰 건축물이 국보유적으로 지정된 것은 이들 건축물들에 인민대중들의 우수한 재능과 근면한 노동이 스며들어 있어 민족 문화유산으로 가꾸고 보존해야한다는 기치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고구려 시대에 창건된 유적이 7건 있는데 그중 정릉사(1992~1993년 발굴), 금강사, 광법사, 용화사는 모두 터만 남아있고 건축물은 남아 있지 않았다. 고려 시대 개창된 것은 강서사, 자혜사, 영산전, 용화사, 용흥사, 동덕사, 관음사 등 8건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조선시대 개창되고 후에 개축되거나 증축되었다. 고려 시대의 사찰로 정방산 성불사(成佛寺)의 응진전(1327년)과 극락전(1374년), 연탄의 심원사(心源寺) 보광전(1368년), 귀진사(12세기 중엽), 용흥사(1048년), 동덕사(1341년)등이 있다.

평양의 정릉사지는 고구려 시대 사찰로 1973년부터 1975년에 걸쳐 발굴 조사하여 새로 밝혀졌는데, 사지의 뒤에 있는 동명왕릉의 원찰(願刹)로 주위에는 20여기가 넘는 고분이 함께 있다. 유적의 규모는 남북 132.6m, 동서 223m로서 회랑(廻廊)에 의해 3개의 사역(寺域)으로 나누어져 있는 중요한 절터이다. 가운데 사역은 청암리 절터와 같은 8각 목탑을 중심으로 한 1탑 3금당식의 배치를 하고 있



〈그림 48〉 정릉사 8각7층 석탑 _ 1991 복원



〈그림 49〉 정릉사 복원 전경 _ 고구려 창건 / 1993 복원, 국보유적 173호

으나 전체는 청암리 절터보다 더 복잡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절은 터만 남아 있던 것을 1991년부터 동명왕릉과 함께 복원 공사에 착수하여 원래 목탑이던 것을 8각의 석탑으로 복원하였고 이 석탑을 중심으로 증금당(보광전), 동금당(용화전), 서금당(극락전)이 옛터의 동편 일부에 신축됐으며 사방으로 회랑을 둘러 울타리를 삼았다. 김일성이 국가적 사업으로 주도한 이 복원사업에는 동명왕이 고구려의 시조임을 들어 북한이 고구려를 계승한 역사적 적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배어 있다.



〈그림 50〉 광법사 _ 고구려 왕건 / 조선 1727 홍수 / 1952 소실 / 1991 복원, 국보유적 164호



〈그림 51〉 광법사 대웅전 전경

최근 복원한 광법사는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에 있는 고구려 시기의 사찰이다. 고구려 광개토왕 때에 평양지방에 많은 사찰이 세워졌는데 광법사도 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1727년에 보수하였으며 한국전쟁 때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을 1991년에 원상을 복구하였다. 광법사는 해탈문, 천왕문, 대웅전, 동·서 승당, 8각5층탑 등으로 이루어졌다. 건물들은 탑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축선상에 대칭으로 배치되었다. 광법

사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웅장한 2층 합각식 지붕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이다. 대웅전은 눈부신 금단청을 하였다. 광법사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연못과 1727년에 세운 광법사비, 그 후에 세운 광법사중수단청비 등이 남아 있다. 1991년 중심구역을 복구하여 원래 팔각목탑이었던 것을 김일성의 교시로 석탑으로 복원하였다.



〈그림 52〉 성불사 청풍루 전경



〈그림 53〉 성불사 웅진전. 통일신라 898 초축 /
고려 1374 중건 / 조선 1630 중건 /
1967 개축, 국보유적 87호

성불사는 황해북도 사리원시 정방산 정방산성 안의 정방산 주봉인 천성봉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데 898년에 처음 세우고 고려 시대에 수리하였다. 성불사에는 극락전을 비롯하여 웅진전, 청풍루, 명부전, 운하당, 산신각 등 여섯 채의 건물과 5층 석탑이 있다. 극락전은 1374년에 고쳐 지은 건물이다. 비교적 높은 기단 위에 정면 3칸(12m), 측면 2칸(6.3m)으로 지은 극락전은 배흘림기둥 위에 3익공, 통천정, 맞배집지붕을 얹은 단층건물이다. 금단청으

로 장식하였으며 꽃살무늬문짝, 대공화반, 동자두공의 조각장식이 우수하다. 웅진전은 1374년에 다시 지은 건물로서 정면 7칸(22.75m), 측면 3칸(6.7m)의 기다랗게 생긴 3포식 맞배집이다. 웅진전은 적당한 크기에 간결하게 된 두공형식과 시원한 건물 안의 골조구성 그리고 통천정, 활개와 동자기둥, 대들보 형태 등 고려시대 건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단청은 모루초에 뚜렷한 휘를 붙이지 않고 청록색 계통이 드러나게 하면서 거기에 금분이나 붉은색을 조금씩 섞어 썼다.

연탄 심원사는 황해북도 연탄군 연탄읍 자비산 증턱에 있는 고려 시대의 사찰로 본전인 보광전과 그 앞에 청풍루, 청풍루 양옆에 묘사가 한 채씩 배치되어 있다. 심원사의 초창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중심건물인 보광전은 1374년에 새로 고쳐 짓고 그 후 여러 차례 보수



〈그림 54〉 연탄 심원사 _ 고려이전 경건 /
고려 1374 중건, 국보유적 91호



〈그림 55〉 박천 심원사 전경 _ 통일신라 9세기초
초창 / 고려 1368 재건 / 조선 1716 중창,
국보유적 54호

하였다. 이 건물은 성불사 응진전(황해북도 봉산군), 평안북도 박천군 심원사 보광전, 부석사 무량수전(경상북도 영주군)과 함께 현재 남아 있는 우리나라 목조건물 가운데 연대가 가장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고려 시대 건물의 우수한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보광전은 정면 3칸(10.98m), 측면 3칸(7.55m)인 남향의 단층합각식 건물이다. 바닥은 널마루로 되어 있고 건물 안의 앞 가운데 두 기둥은 없으며 높이 6m나 되는 뒤 가운데 두 기둥 사이를 막아 불단을 만들고 불단 위에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섬세하고 화려한 담집(건물 안벽에 매달 자그마한 집)을 매달아놓았다.

기둥은 고려 시대의 전형적인 형태인 배흘림기둥으로 포식두공을 얹었는데 우리나라 포식두공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의 하나이다. 보광전의 천정은 가운데를 소란반자로, 그 주변을 빗반자로 치장하였다. 건물 정면의 양 옆 칸에는 격자무늬를, 가운데 칸에는 모란과 연꽃을 풍성하게 뿜어새긴 꽃살문을 달아 건물을 더욱 화려하게 하였다. 단청은 대부분 18세기에 다시 한 것이지만 일부 요소들에 은은하고 무게 있는 고려시대의 단청이 남아 있어 성불사 응진전의 단청과 함께 고려 단청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되고 있다. 보광전은 전반적 구성이 안정되고 고려 건축의 양식상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어 고려시대의 건축술을 연구하는 데 중요하다.

석왕사는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에 있는 고려 말-조선시대의 사찰로 고려 말인 1386년에 처음으로 응진전이 세워지고 그 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50여 채가 넘는 크고 작은 건축물들이 세워졌다. 석왕사는 동쪽으로 트인 깊은 골짜기에 남향한 두 개의 기본 구성축을 이루면서 건물들이 지형에 맞게 조화롭게 배치되었다. 위쪽의 건축군은 응진전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아래쪽은 대웅전을 기본으로 이루어졌다. 석왕사로 들어가는 첫 문은 불이문이다. 불이문은 석왕사 앞으로 흐르는 개울에 건너놓은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 위에 세운 아담한 문으로 1751년에 세운 것이다.



〈그림 56〉 석왕사 조계문 _ 조선 후기

조계문은 석왕사의 두 번째 문으로 1783년에 고쳐 지은 것이다. 이 문은 4각 돌기둥을 좌우에 하나씩 놓고 그 위에 배흘림식 나무기둥을 세운 다음 커다란 합각지붕을 올린 것으로 일주문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천정은 한 칸짜리 건물이나 소

란반자와 빗반자를 뒀으며 봉황, 용, 비천 등을 그려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석왕사의 중심구역에 이르러 아래 중심축 북쪽 깊숙이에 대웅전이 자리 잡고 있는데, 대웅전은 1731년에 고쳐 지은 것으로서 석왕사의 중심건물이다. 대웅전은 정면 5칸(18.6m), 측면 3칸(11.1m)의 겹처마합각지붕건물이다. 이 건물에는 화려한 금단청을 입히고 문살들에 기하학적 무늬를 섬세하게 새겨 건물 전체가 화려하다. 대웅전 앞에는 호지문이 서 있었고 그 앞에 영월루가 남향하여 서 있었다. 그리고 대웅전을 중심으로 동쪽에 만궁당, 서쪽에 심점당이 마주서고 만궁당



〈그림 57〉 석왕사 호지문
조선 1392 조축 / 1950 보수 /
진주 복원, 국보유적 176호

쪽으로 무상당, 흥복당, 설성동루가 있었으며 심검당에 연이어 해장원, 팔상전, 명부전, 보명당, 문한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석왕사의 위쪽 중심축 북쪽에 이 사찰의 기본건물의 하나였던 응진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려 말기의 건물을 대표하는 응진전은 비교적 높이 쌓은 기단 위에 정면 5칸(15.77m), 측면 2칸(6.4m)에 안팎 5포의 긴 맞배집이었다. 석왕사는 한국전쟁으로 불이문, 조계문, 설성동루, 용비루, 인지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들이 불타 없어졌다.

6. 금속공예 및 도자기, 회화

(1) 금속유물

북한의 금속유물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 유물로 황북 신계군 정봉리와 평양 정백동 고분의 청동세형검(靑銅細形劍)과 청동과(靑銅戈), 청동시루 및 평남 대동군 일대의 고분에서 나온 청동세문경(靑銅細文鏡)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 시대 유물로 평양시 무진리 고분에서 나온 금동투각관형장식을 비롯하여 평양 청암동 토성에서 출토된 투각화염문금동관(透刻火焰紋金銅冠), 금제태환귀고리(金製太環耳飾) 등의 금속유물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림 58〉 금동관형투각장식 _ 고구려(4~5세기), 진마리7호분 출토



〈그림 59〉 투각화염문금동관 _ 고구려(4~5세기), 청암리토성 출토



〈그림 60〉 영강7년명 금동광배 _ 고구려(651)



〈그림 61〉 연복사종 _ 고려(1346)



〈그림 62〉 신계사 은입사병문향완 _ 고려(1352)

불교 금속유물은 평천군의 영강7년명금동광배(永康七年銘金銅光背, 551년)를 비롯하여 개성 남대문의 연복사종(演福寺鐘, 1346년), 신계사 청동은입사연당초문향완(神溪寺靑銅銀入絲蓮唐草文香碗, 1352년), 대동문의 평양종(1726년) 등을 들 수 있다. 연대가 분명한 영강7년명금동광배는 고구려 불상을 대표하는 중요유물이 되며 거대한 중국종의 형식을 갖춘 연복사종은 고려시대 동종으로 조선시대 범종(梵鐘)의 형식을 성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와 같은 북한 소재 금속유물의 형식이나 양식 및 시대 편년 등의 미술사적인 여러 가지 구체적 정립이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없는 실정이다. 금속유물은 청동기에서 고구려, 고려, 조선 시대까지 다양한 유물이 있다.

(2) 도자기

북한의 도자기는 주로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개성 고려박물관, 사리원력사박물관, 해주력사박물관, 청진력사박물관 등 주요박물관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4년 발간한 「북한 문화재해설집Ⅳ 북한의 주요박물관소장품」을 통해 북한의 주요박물관에 소장된 도자기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각 박물관에 소장된 도자기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63〉 청자과형병
고려(12세기),
개성시 개성군
해신리 유물,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그림 64〉 청자음각연화당초문매병
고려(13세기 전반),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그림 65〉 청자타구
고려(13세기 전반),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은 북한의 주요 박물관 중 가장 많은 수의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다. 고려청자를 비롯하여 조선의 분청자와 백자가 망라되어 있다. 고려청자는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에 제작된 작품은 보이지 않고 주로 중기와 후기의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고려청자 전성기인 중기의 12세기 전반에서 13세기 전반에 속하는 비색청자인 청자양각연판문발과 청자양각연화문화형접시는 유색과 제작기법이 뛰어나며 청자과형병과 청자탁잔, 청자정병, 청자주자 등의 상형청자와 청자음각연화당초문매병, 청자음각초화문과형주자 등의 음각청자 작품이 주목된다. 이 중 청자과형병은 1146년에 돌아가신 인종(仁宗) 장릉(長陵)에서 출토된 청자과형병과 닮았고 청자음각연당초문매병은 흰칠하게 생긴 형태, 섬세한 연화당초문의 음각시분, 비취색의 유색 등이 뛰어난 예라고 할

수 있다. 청자타구(靑瓷唾具)도 드물게 보이는 작품이다.



(그림 66) 청자상감연화문병
고려 14세기,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그림 67) 청자상감국화
문통형잔
고려(13세기 후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그림 68) 청자상감국화
문마상배
고려 14세기,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상감청자로는 13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는 후기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청자상감 국화문통형잔(靑瓷象嵌菊花紋筒形盞)과 청자상감국화문마상배(靑瓷象嵌菊花紋馬上杯)는 뛰어난 작품으로 1271년 파괴된 잔도 용장성터에서 출토된 예가 있고 찻잔용으로 쓰였던 것으로 일본에 전하는 고려다완과 같은 작품이다. 14세기 전후의 작품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자상감국화여지문발(靑瓷象嵌菊花蔞芝紋鉢)과 1329년으로 추정되는 청자상감포류수금문 '기사' 명발(靑瓷象嵌蒲柳水禽紋 '己巳' 銘鉢)의 예는 간지명(干支銘)이 있는 희귀한 작품이다.

조선분청자기는 각 기법별로 15세기 전반에서 16세기 전반에 걸치는 작품들이 1~2점씩 골고루 포함되어 있고, 조선시대 백자의 경우에 초기의 작품은 드물고 주로 중기와 후기의 17~19세기의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개성역사박물관에도 개성이 고려시대 수도였으므로 수많은 고려청자 작품들이 있다. 조선분청자기는 상감과 인화, 선각과 박지, 철화나 귀얄덤병의 분청자가 2~3점씩 구색을 갖

추었을 뿐이고 수량도 적어 각 종류의 예만 보여줄 뿐이다. 조선백



〈그림 69〉 분청사가칠화
초화문병
조선(15세기~16세기),
조선중앙박물관

자의 작품은 초기인 15, 16세기의 예는 드물고 17세기의 철화백자(鐵畫白磁)들과 주로 18, 19세기의 호화 병, 청화백자의 호화 병, 점시와 사발, 대접들과 문방구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려청자에 비해 조선분청자와 백자의 작품은 수량도 적고 질에 있어서도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개성 고려박물관에도 다양한 종류의 고려청자가 소장되어 있다. 상감청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청자상감연화문매병과 같은 뛰어난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조선 분청자와 백자는 소량으로 15세기의 분청자상감용문호(粉靑瓷象嵌龍紋壺)와 분청자상감귀갑문매병(粉靑瓷象嵌龜甲紋梅瓶)이 주목된다.

사리원력사박물관에는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작품들이 소량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개풍군 해선리 출토로 알려진 청자상감모란문장경병이 드물게 보이는 작품이다.



〈그림 70〉 원산리 1호 가마터
고려 이전,
국보유적 166호

이밖에도 국보유적 165호~168호로 지정된 원산리 청자가마터(1호~4호)는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에 있는 고구려 말-고려시대의 청자가마터로 1호부터 4호까지 4개의 가마터가 있다. 원산리 1호는 가마구조와 거기에서 나온 유물 및 C¹⁴에 의한 연대 측정 결과 고구려 말의 가마터로 추정되고, 나머지는 9세기 말-고려시대의 가마터들이다. 1호 가마터는 단일의 동요 가마터이다. 1호 가마터에서는 고구려 유적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기와 함께 청자기들이 출토되었다. 이와 유사한 가마터는 봉천군 봉암리에서도 드러났다.



〈그림 71〉 원산리 2호 가마터
고려 초기(10세기),
국보유적 166호



〈그림 72〉 원산리 3호 가마터
고려 초기(10세기),
국보유적 167호

원산리 2, 3, 4호 가마터는 구조와 출토된 유물이 유사하다. 2호 가마의 구조를 보면 연소실, 소성실, 굴뚝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 번의 개축이 있었다. 가마의 개축은 먼저 쌓았던 좌우 벽체의 내부에 벽돌을 덧붙여 쌓는 방법으로 하였다. 편의상 가마를 고친 순위에 따라 1, 2, 3, 4차 가마로 부른다. 1차 가마의 길이는 38.9m이고 너비는 1.9m이며 4차 가마는 길이가 22.4m이고 너비는 0.8~1m이다. 2, 3차 가마의 길이와 너비도 1, 4차 가마의 길이와 너비의 범위 안에 들며 가마바닥의 경사도는 10°이다. 1차 가마의 쪽은 연소실을 좀 벗어나서부터 점차 넓어졌다. 1차 가마의 좌측 벽에는 여러 개의 출입구의 흔적이 있는데 이것에 기초하여 보면 1차 가마 칸은 7개의 칸이다. 연소실은 가마의 제일 아래 가마 칸 보다 한 단 낮은 곳에 있는데 그 단의 깊이는 약 1m 정도이고 경사도는 65°이다. 굴뚝 흔적은 1차 가마의 마지막 끝단 부위에만 남아 있다. 2호 가마는 여러 번 고쳐 쌓으면서 이용하였으므로 1차 가마와 4차 가마 사이에는 연대상 차이가 있다. 3차 가마에서는 고려 3대왕 정종(定宗, 946-949년)의 무덤인 안릉(安陵)에서 출토된 잔대, 화형접시 등과 같은 자기들이 출토되었고 4차 가마에서는 쟁반형급접시(992년)가 출토되었다. 이것은 3차 가마의 개축이 있는 지 40여 년 후에 4차 가마의 개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 40년의 개축 주기로

추정한다면 결국 2호 가마는 9세기 말~10세기 말에 쓰던 가마로 판단된다.

원산리 자기가마터에서는 접시, 사발, 병, 주전자, 단지, 바리, 대야 등 청자기들과 갑발과 밀대 등 자기생산에 쓰였던 다양한 용구들이 함께 출토되었다. 가장 주목되는 청자기는 쟁반형급접시인데 2호 가마에서 나왔다. 쟁반형급접시는 쟁반직경이 2.5cm이고 급직경은 24.5cm이며 높이는 25.5cm이다. 밑굽의 안쪽가장자리에는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匠王公鑄造”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992년에 왕의 신주를 두는 사당 네 번째 칸 제사그릇 장인인 왕공택이 만들었다는 뜻이다. 또한 ‘순화4년(993년)’이라는 연호와 이미거, 심기, 심규, 최금환, 최금만 등 장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청자기들도 나왔다. 태묘에 쓰는 ‘순화3년’, ‘순화4년’이라고 쓴 청자기들을 통하여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淳化四年銘 崔吉壽壺’도 원산리 청자가마터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원산리 청자가마터와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말부터 청자기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10세기를 전후한 고려 초기의 도자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회화

고구려 벽화를 제외하고 북한이 소장하고 있는 일반회화와 불교 회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개된 바가 없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특히 회화작품은 다른 유물과 달리 개인이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거나 전세되어 전쟁이나 화재로 인한 소실 및 관리부실에 따르는 손상을 입기 쉬워서 전하는 작품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림 73〉 최조묘구도 _ 이암
(李巖, 1499~?)



〈그림 74〉 목동오수도(牧童午睡圖) _ 김두량(金斗樑, 1696~1763)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된 회화작품의 원판필름이 「사진으로 보는 북한회화-조선미술관」(2006)으로 처음 발간되었다.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된 회화작품 511점 중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진작으로 확인된 281점이 공개되었다. 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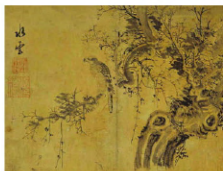
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 그림들은 산수, 인물, 풍속, 영모(翎毛), 화조, 화훼(花卉), 사군자, 어해(魚蟹), 기명절지(器皿折枝) 등 주제가 다양하다. 그 중에는 일급의 중요 작품들도 적지 않게 끼어 있음이 주목된다. 즉, 이암(李巖, 1499~?)의 강아지 그림이나 조선 후기의 화가 김두량(金斗樑, 1696~1763)의 〈목동오수도(牧童午睡圖)〉, 산수화에 뛰어나 최산수(崔山水)라고도 불렸던 최북(崔北, 1712~1786?)의 〈석담구곡(石潭九谷)〉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김두량의 〈목동오수도〉는 풍속화에 서양화법이 접목된 수작으로 서울에 있다가 일본으로 건너간



〈그림 75〉 석담구곡 _ 최북
(崔北, 1712~1786?)

후 다시 북한에 전해진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회화수집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주로 일본의



〈그림 76〉 매 _ 회여도(崔汝暎, 19세기)



〈그림 77〉 신선에 대한 이야기 _
심사정(沈士正, 1707 ~ 1769)

조총련계 단체나 개인들이 조선시대의 그림들을 열심히 구입하여 선물로 보내진다고 한다.

7. 무형문화재

(1)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일컫는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북한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이른바 '민족문화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민족문화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개조하는 한편 이를 체제선전과 주민교양에 적극 이용해 왔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민속자료와 민속놀이 등의 무형문화재를 문화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여 배척해왔다. 전통민속놀이를 '조선민속놀이'로 명명하면서 이를 문화재와는

별개로 다루어 당성과 계급성을 띠고 혁명과 건설에 복무하는 것으로 유지시켜 왔다.

북한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에서 1991년 편찬한 「현대조선말사전」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명절로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경축하는 기념일, 인민경제의 부문에서 경축하는 기념일, 국제노동계급과 인민들의 사회계급적 해방과 전통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축하는 기념일 등을 들고 있다. 사회주의 명절에는 충성의 선물 전달, 각종 예술 공연, 토론회, 전시회 등의 축하행사를 하며 김정일 생일부터 김일성 생일까지를 격년으로 '충성의 축전'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전통적인 민속명절로 설날, 단오, 추석, 한식을 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 단오를 특별히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세시풍속 대신 사회주의 명절을 지내게 됨에 따라 세시풍속과 밀접하게 전승되던 민족고유의 각종 민속놀이가 군사놀이 '체육경연씨름공연'으로 바뀌었다. 널뛰기는 정월대보름 여성들이 즐기던 놀이며 그네뛰기는 단오날 여성들의 놀이로 세시풍속과 관련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명절과 상관없이 체육대회를 열어 민속놀이를 거행한다. 줄다리기는 대중적 승리를 위한 노력 또는 인민봉기의 형상 등 단결된 집단의 역량을 시위하며 투쟁정신을 배양한다는 이유로 장려되고 있다. 농악은 노동절이나 북한정권 창건일이나 볼 수 있어 농악을 변모시켜 대중화를 추구하고 있다.

탈놀이는 착취자들에 반대한 인민들의 감정을 반영하여 계급적 이해관계와 사상 감정을 반영한 우수한 인민창작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탈놀이는 황해도 봉산탈춤, 강령탈춤, 강원도의 통천가면극, 함경도 북청사지놀이가 있다. 함경도 북청의 민속놀이인 돈돌

라리와 달래춤은 인민들의 애국주의적 사상 감정이 힘차게 습취고 있는 반외세 지향의 군중적 가무(歌舞)라고 평가한다. 황해도 장연의 시절웃놀이는 인민성이 가장 풍부한 놀이로서 지주에 대한 중요심이 표현되어 농민들의 단합된 힘을 시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북청의 홑볼싸움은 청소년들의 용감성과 단결심, 완강한 투지를 길러 주며 봉건 통치배들에 반대하여 인민봉기가 일어난 것을 형상화 했다고 말한다. 장연의 꼭두각시놀음은 인민들의 계급적 감정이 표현되어 있으며 양반, 승려 등 특권지배계급에 대한 중요, 경멸, 반감의 정신이 예리하게 드러나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민속놀이는 민족문화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계급적 사고방식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속놀이를 반외세투쟁으로 구체화 내지 집체화 하고 있음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현재 남한에서는 북한지역의 무형문화재가 해방이후 1950년 1·4 후퇴 시에 월남한 소수의 연희자들이 이북오도청(以北五道廳)과 함께 그 보존 전승에 힘을 쏟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보존·전승되어오고 있다. 즉, 황해도 지방의 가면극으로 봉산탈춤, 해주탈춤, 강령탈춤 등이 있고, 민속놀이로는 함경도 지방의 북청사자놀이가 있으며, 음악으로는 서도소리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오고 있다.

황해도 지방에서는 민중오락의 하나로 탈춤놀이의 가면극이 조선 시대부터 해마다 연중행사의 하나로 음력 5월5일 단오절 밤에 야외에서 연희되어 왔다. 이 가면극은 주로 봉산(사리원), 황주, 기린(평산군), 해주, 강령(웅진군) 등지에서 행해져 이들을 통칭하여 '해서탈춤'으로 부르기도 하며 그 중 봉산탈춤이 가장 대표적이다.

북청사자놀이는 함경도 북청군의 여러 지역에서 옛날부터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거행되어 왔다. 이 놀이는 벽사진경을 목적으로 백수의 왕인 사자로 잡귀를 몰아내어 동리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해졌다. 놀이꾼은 모두 마을 주민인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전승한 대동놀이로, 마을의 단결과 협동을 도모하는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가가호호를 순회하며 벽사를 해준 대가로 받은 돈과 곡식은 동리의 장학금·빈민구제·경로회 비용 및 사자놀이 비용 등에 충당되었다.

평안도 지방의 서도소리는 평안도·황해도 등 관서지방의 향토가요로 흔히 '수심가보리'라고 한다. 위의 음은 흘러내리고 가운데 음은 심하게 떨리며 아래 음은 곧게 뻗는 특이한 가락으로 느리게 부르면 구슬픈 느낌을 주는 것이 서도소리의 특징이다. 평안도 민요로는 <수심가(愁心歌)>, <엮음수심>, <긴아리>, <자진아리>, <안주에원성(安州哀怨聲)> 등이 있고, 황해도 민요로는 <산염불(山念佛)>, <자진염불>, <긴난봉가>, <자진난봉가>, <사리원난봉가>, <병신난봉가>, <숙천난봉가>, <몽금포타령> 등이 있다.

북한의 무속은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지역의 무속을 가리킨다. 월남한 무당들에 의해 그 내용이 알려졌다. 함경도의 굿은 강원도, 경상도 동해안의 굿과 상통하는 점이 있어 동일한 무속권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함흥과 그 인근 지역의 무당은 '호세미'라고 하는데, 강신무이지만 다른 지역의 굿에서 볼 수 있는 요란한 공수나 격렬한 모듬춤은 보이지 않고 앉은거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착용하는 무복 자체도 화려하지 않고 대부분 평상복을 입은 채 굿을 진행하며 장고, 늦대야, 늦양푼, 바라 등의 타악기만이 사용한다.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의 무속은 경기북부와 더불어 경서토리 선술에 굿거리장단을 중심으로 하는 같은 무가권역에 해당시킬 수 있다. 이들 지역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춤과 공수가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 평안도 굿은 무당이 화려한 무복을 입고 다양한 무구를 사용하며 여러 가지 巫技를 보여줌으로써 오락성이 강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황해도의 무속은 극적 표현과 놀이굿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황해도 굿에는 장구, 징, 바라의 타악기를 기본으로 하고 큰 굿에서는 피리, 대금, 태평소 등의 관악기와 해금의 현악기도 사용된다.

(2) 북한의 공예

북한의 공예는 근대기를 전후한 시기까지 존속했던 전통공예의 원형이 거의 사라지다시피하여 전통공예가 급속히 변모되고 새로운 공예가 중요한 부문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표방했던 북한미술은 공예품의 형태나 문양표현에서 십장생문양 등 조선왕조시대의 전통경향을 띤 복고경향을 비판하여 추방하고 사회주의 사상의 정서적 기능을 표현하도록 혁신시키며 1970년대 초부터 주체사상과 민족적 자주주의를 내세우면서 공예작품에서 사상적 상징성이 극히 중요한 표현 주제가 되고 공예품들이 주체사상화를 위한 과업수행에 이바지 하는 국보적인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공예를 바탕으로 한 현대의 민족공예발전을 장려하던 1960년대와 달리 1970년대부터 주체사상의 상징성을 담은 세밀한 사실적 형상표현이 공예 전반에 만연하게 된다. 북한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발전시킨 공예분야는 도자공예와 자수공예부분이다.

8.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

북한의 《명승지·천연기념물 보호법》에 따르면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 교양적 의의로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물을 일컫는다.”고 한다.

명승지에는 산, 바닷가, 호수, 폭포, 계곡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한 명승지는 총 173건으로 대표적인 것은 평양 을밀대를 비롯하여 박연폭포, 녕변 약산동대, 황해남도 석담구곡, 은륜팔경, 황해구곡, 경암산공원, 정방산유원지, 강원도 내금강, 의금강, 해금강, 함경남도 북청 삼산구포십이대, 함경북도 어랑 팔경대 등이다.

천연기념물은 자연 중에서 학술적 및 풍치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 관리하는 대표적인 자연물을 말하는 것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동식물종이나 특산동식물, 특이한 지리, 지질이 대상으로 동시에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사상교양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고 역사적 내용이 있는 대상,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의의가 있으며 학술적 및 풍치적 내용이 큰 대상들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식물과 동물, 지리·지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 식물

①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대상

천연기념물로 설정하는 데는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는 나무이면서도 풍치적 및 학술적 의의가 있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는 식물들로는 지도자들이 직접 심은 나무들, 이름지 어준 나무, 뜨거운 은정이 깃들어 있는 나무, 혁명투쟁의 역사적 사실이 깃들어 있는 나무 등이 있다. 실례로 <문수봉이깔나무>, <릉라도 산벚나무와 전나무>, <대성산목련>, <은정배나무>, <왕재산참나무>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인민들의 열렬한 애국투쟁역사와 향토애가 깃들어 있는 대상들을 천연기념물로 선정한다. 천연기념물로 설정하는 데는 나무의 모양과 학술적 의의가 부족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이 중요할 때에는 우선 설정한다. 실례로 <윤물(홍골)황목련>, <이천 영웅은행나무>, <3.1밤나무> 등을 들 수 있다.

② 풍치적 의의를 가지는 대상

풍치적 의의를 가지는 대상에는 우선 독립수를 기본으로 하고 묽음과 멍치로 되어있는 것을 천연기념물로 설정한다. 이러한 대상들 가운데도 모양과 풍치 미관상 좋은 것을 먼저 설정한다. 독립수인 경우에도 우선 나무모양이 좋은 것으로 설정하되 어느 방향에서 보나 손색이 없어야 한다. 묽음과 멍치로 배치되어 있는 대상은 모양과 관상미, 풍치미가 좋아야 한다. 그래야 풍치 미학적으로나 국토 미학적 요구에 부합되게 된다. 다음으로 원림식물종으로서 나무 나이가 오래고 크며 모양이 좋은 것을 천연기념물로 설정한다. 전나무, 수삼나무는 자라는 단계에 따라 원추모양, 고깔모양, 타원모양 등의 갓을 이룬다. 느티나무는 우산모양, 닭알모양, 둥근모양으로 자라고 은행나무는 닭알모양이 기본이면서도 둥근모양, 우산모양의

나무갓을 이룬다. 다음으로 풍치지점이 좋은 것을 천연기념물로 설정한다. 풍치지점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역사 유적이거나 기념비적인 건물, 정휴양소와 공공시설물, 마을과 논밭주변의 휴식터가 있는 곳이다. 이런 곳은 근로자들의 문화휴식과 정서생활에 적극 이용되면서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풍치 지점이 좋아야 한다.

③ 학술적 의의를 가지는 대상

학술적 의의를 가지는 대상에는 우선 특산식물이 속한다. 금강국수나무, 금강초롱, 장수만리화, 금수목과 같은 식물은 희귀하고 학술적 의의가 높으므로 천연기념물로 설정한다. 다음으로 학술적 의의를 가지는 대상에는 도입수종들이 속한다. 도입수종에는 북한의 자연환경에 적응되어 자라는 식물들도 있으며 생태적 특징과 풍토 순화과정, 번식방법 등을 계속 연구 완성해 나가고 있는 식물종들이 있다. 그러므로 각지에 있는 시험연구림을 비롯하여 개별적 시험대상들을 조사하여 천연기념물로 설정한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 국가수반들로부터 받은 선물 식물 가운데는 나라의 식물학 발전과 인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식물들이 많다. 그러므로 전망이 큰 식물들을 천연기념물로 설정한다.

④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대상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대상은 과일나무류, 기름나무류, 약나무류이다. 이러한 종류들 가운데서 새로운 품종과 장려 품종의 조상식물, 경제적 가치가 큰 식물, 희귀한 식물들이 설정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식물천연기념물의 설정은 그가 가지는 사명과 의의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2) 동물

① 학술적 의의가 있는 대상

학술적 의의를 가지는 대상에는 우선 나라의 특산동물들이 속한다. 클락새는 우리나라에만 퍼져있는 새로서 희귀하고 아름다우며 별레잡이의 명수이다. 그 분포지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클락새 등지에 대한 조사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분포지대를 찾아내어 천연기념물로 설정한다. 학술적 의의가 있는 대상에는 또한 발견된 동물종들과 기르는 종들이 자연화 되어가고 있는 대상들, 도입종들 가운데 전망이 큰 대상들을 전문 일군들과 합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설정한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한 집짐승의 시원종으로서 순종보존에 의의가 있는 대상들도 신중히 고려하여 설정한다.

② 보호동물과 이로운 동물의 대상

국제적으로나 나라에서 그 마리수가 극히 적으며 점차 줄어들고 있는 동물들과 살이터, 번식지들은 천연기념물로 설정한다. 사향노루, 사슴, 자라, 곰, 범, 수달을 비롯한 동물들은 먹이와 번식조건, 살이 조건이 조성된 지대를 정하여 천연기념물로 설정한다.

③ 풍치를 아름답게 하는데 의의가 있는 동물의 대상

향토를 아름답게 하는 동물들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과 향토를 사랑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갈매기를 비롯한 바다 새 번식지들과 백로왜가리, 두루미, 원앙새 등의 번식지들과 살이터들을 찾아내어 천연기념물로 설정한다.

(3) 지리·지질

① 역사적 의의가 있는 대상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으면서 특별히 학술적으로나 풍치적으로 의의가 있는 자연 지리적 및 지질학적 대상물을 설정한다. 실례로 백두산 천지, 삼지연 등을 들 수 있고 교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호수, 폭포, 명서, 바위, 광천 등의 지리·지질 대상물을 천연기념물로 설정한다.

② 학술적 의의가 있는 대상

나라의 과학발전과 인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용할 뿐 아니라 잘 보호해야 할 지리·지질 대상물을 천연기념물로 설정한다. 인류의 기원 문제를 비롯하여 동식물의 진화과정, 기후변동, 고리적 환경, 층서해명과 지질시대, 광상탐사 등 학술문제를 밝히는데 의의가 큰 화석과 암석의 형성과정과 분포, 조성과 구조로 하여 유용광물 탐사의 전제로 되거나 지질학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이한 암석, 나라의 지질시대에 있는 지체구조적 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대표적인 습곡과 단층의 노출된 땅구조, 광천의 온도가 특별히 높거나 물압력이 세며 물성분에서 특이한 온천과 약수를 천연기념물로 설정한다. 실례로 강안리동물화석자리, 일신타코끼리화석자리, 온성물고기화석층, 백금산마그네사이트광체, 흘동석로두, 금강수정, 서평양습곡, 대중리단층, 평남온천, 석탕온천, 온포온천과 강서약수, 광명약수, 삼방약수 등을 들 수 있다.

③ 풍치적 의의가 있는 대상

나라에서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특이한 풍치와 기묘한 생김새로 하여 자연경치를 대표할 수 있고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

과 혁명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연 지리적 대상물과 풍치적 효과가 있으면서 그 형성과정의 복잡성과 특이성으로 하여 학술적으로 의의가 큰 대상물 및 역사적·교양적 의의가 있고 학술적 의의를 많이 포괄하고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로 설정한다. 실례로 삼일포, 충석정, 해금강문, 상팔담, 삼선암, 천주석, 거북바위, 해칠보무지개바위, 비단섬코끼리바위, 삼방협곡, 장수산열두굽이, 국도 등을 들수 있다.

Ⅲ.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방안



1. 현황
2. 전망과 과제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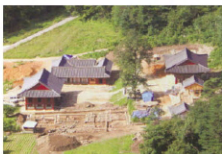
북한의 문화재 실태

Ⅲ.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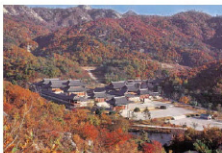
2000년 이후 남북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확대에 발맞춰 남북 간 민족문화유산 공동 발굴조사, 불교 관련 자료 교환, 사찰 복원 등 대북 지원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사찰 복원사업 참여이다.

조계종단과 평화통일불교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이 추진되었다. 금강산 신계사는 신라 법흥왕 6년(519년) 보운(普雲)스님이 창건한, 장안사(長安寺), 유점사(楡岾寺), 표훈사(表訓寺)와 더불어 금강산 4대 명찰의 하나이며 외금강 지역에서 가장 큰 고찰로 임진왜란 때 서산, 사명대사가 승군을 일으켜 지휘했고



〈그림 78〉 신계사지 발굴 및 복원 전경

근대에 와서는 조계종 통합종단의 초대 종정으로 한국불교를 증흥시킨 효봉스님이 주석하였다. 한국전쟁 때 소실돼 주춧돌만 남은 폐허 상태였다. 복원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 10월에 대웅보전, 만세루, 극락전, 축성전, 칠성각, 종각, 나한전, 어실각, 산신각, 요사채 등 모두 14채의 전각을 복원하였다.



〈그림 79〉 영통사 전경 _ 고려 1027 창건 / 2003 복원, 국보유적 192호

천태종단은 개성 송악산 자락 오관산에 자리한 영통사의 복원에 참여하였다. 영통사는 고려 현종 18년(1027년)에 창건됐고 왕실과 깊은 연관을 맺어 인종 등 여러 왕들의 진영각이 있던 왕실사찰로 특히 고려 문종의 4째 아들인 의천스님의 출가 열반지이며 보물급 문화재가 많다. 조선 중기인 16세기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영통사는 북한의 내각 직속기구인 조선경제협력위원회가 1998년 영통사 사찰복원위원회를 구성하여 29동에 이르는 건물을 복원하였다. 2003년부터 남한의 천태종이 기와와 단청재료, 증장비, 건축마감재 등을 지원하면서 남북한 공동복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복원으로 전제 1만8천평에 달하는 대지에 대법당인 보광원(대웅전)과 왕의 숙소로 사용된 승복원 등 29채의 전각들과 고려사에 50여 차례의 강의가 진행됐다는 기록이 있는 증각원을 비롯하여 대각국사비(국보유적 155호), 5층 석탑(국보유적 133호), 동 3층 석탑(보존유적 541호), 서 3층 석

탑(보존유적 542호), 당간지주(보존유적 536호) 등이 복구되었다.

일제에 의해 국외로 반출되었던 복관대첩비가 반환운동을 통해 귀환, 제 위치를 찾아 복원되기도 하였다. 복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때 정문부(鄭文孚)를 대장으로 한 함경도 의병의 전승을 기념한 전 공비이다. 1905년 러일전쟁 때 함경지방에 진출한 일본군 제2예비사단 여단장 소장 이케다 마시스케(池田正介)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된 복관대첩비(국보유적 제193호)가 '군국일본'의 상징인 도쿄(東京)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 방치되었던 것을 반환운동을 통해 2005년 10월 20일에 한국으로 반환되었고 2006년 3월 1일에 비석의 원래 자리인 함경도 길주에 복원하였다.

한편 북한 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남북문화재계의 교류에 진전을 보이기도 하였다. 2002년 등재를 신청했던 북한 '고구려 고분군'이 2003년 총회에서 심의됐으나, 중국의 뒤늦은 고구려고분군 등재 신청과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보존상태 미비 지적 등의 이유로 등재가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하에 남북 당국자들이 손잡고 등재를 위한 외교 작업을 펴기에 이른다. 남북 당국자들은 21개 이사국 대표들을 함께 찾아다니며 공동으로 등재를 위한 외교전을 펼쳤고, 마침내 2004년 7월 1일 중국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에서 열린 <제28차 UNESCO 세계유산위원회(WHC)>의 세계유산 등재회의에서 중국과 북한이 따로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었다. 이는 남북 문화재 교류활동에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고 향후 유적에 대한 접근성 확보와 남북 학계 간 교류 및 이를 위한 정책 마련 등의 필요성 제기와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남북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기반마련의 계기가 된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성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남한이 북한을 적극 지원하기로 남북이 합의하고 이를 계기로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5.12.16)에 '남과 북은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화재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의 자산인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남북간 상호 이해 증진 및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주관하여 2006년 4월 남북학자 등 40여 명이 '북한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2006년 7월에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에 남북이 합의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9월과 2008년 10월 공동 발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남북한 문화재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유산의 공동 보존을 위해 매우 의의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국보급문화재나 전통공예품의 국내 전시가 성사되기도 하였다. 북한 국보급문화재 특별전시회는 2006년 6월부터 10월까지 '북녘의 문화유산-평양에서 온 국보들'이라는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었다. 전시유물은 개성이나 함흥의 역사박물관, 사찰 등에 소장되어 있던 문화재 90점으로 주목을 끌었다. 이 북한 문화재 특별전시는 민족의 동질성과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확인하고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향후 우리 문화재의 북한 전시 추진 등 역사 문화계의 교류를 통한 통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밖에도, 2007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및

2008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등 북한전통공예품의 남한 전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대북 문화재사업이 민간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서 남북교류의 발판을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있다.

2. 전망과 과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력이 확대되어 이미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문화재 분야의 교류는 남북한의 오랜 분단의 이질감 극복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더 나아가 한 민족으로서 우리문화의 정통성을 견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 분야의 교류도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문화재 분야 교류협력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그동안의 교류는 사실상 교류의 명목으로 남측의 다소 일방적인 지원에 불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 남북한 당국이 직접 만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진솔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상호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내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당국간 혹은 민간간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 양측의 확고한 제도적인 보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방문과 함께 서둘러야 할 일은 악화되는 경제사정 만큼이나 빠르게 훼손되고 있는 북한의 문화재 보존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은 문화재 현장을 공개하고, 남측에 물적·인적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북한의 문화재 실태를 조사하여 북한의 문화재 보존 복원사업에 남측의 문화재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문화재의 상호 교환전시와 공동 발굴, 학술대회 개최 등 실질적인 교류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야 한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상호협조 및 문화재의 해외유출 방지, 해외소재 문화재의 환수,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 중국의 동북공정사업 등 대외적인 문화재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

북한의 문화유산을 북한만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남북한 공동의 유산으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참 고 문 헌

>> 북한자료

- 정백운, 해방 후 우리나라 고고학의 발전, 「문화유산」 4호, 과학원출판사, 1958, p.7-16
- 과학원, 해방 후 조선고고학이 걸어온 길, 「문화유산」 4호, 과학원출판사, 1960, p.1-15
- 채희국, 평양 부근에 있는 고구려 시기의 유적 - 고구려 평양천도 1530주년에 제하여, 「문화유산」 5호, 과학원출판사, 1957, p.5~19.
- 채희국,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 「유적발굴보고」 9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p.188
-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및 민속학강좌,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 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6, p.99
- 사회과학원 자료실, 해방 후 발굴 연표, 「고고민속」 1호, 사회과학출판사, 1965, p.59-64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발굴 및 탐사 소식(1), 「조선고고연구」 1호, 사회과학출판사, 1986, p.45-48
- 박승덕, 「사회주의 문화 건설」,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문화보존사, 단군릉, 1995
- 강인숙, 단군은 고조선의 건국시조, 「역사과학」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4, p.53-57
- 박진욱, 단군릉 발굴정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호, 사회과학출판사, 1994, p.2-6
- 강세권, 동명왕 사당에 대하여, 「역사과학」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4, p.46-50
- 조선문화보존사 편집부, (법제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유물보호법」해설(3), 2001
- 조선유물유적도감편찬위원회,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II, III, IV, V,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남한자료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북한 문화재 실태와 현황, 1985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북한 문화재 관계 문헌 회보, 1990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북한 문화재 사진전도록, 1992
-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1 - 석조물편, 1997
-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2 - 사찰건축편, 1998
-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3 - 일반건축편, 2002
-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4 - 북한의 주요박물관소장품, 2004
-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으로 보는 북한국보유적, 2006
-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 문화재 관계문헌 회보 증보판, 2007
-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으로 보는 북한회화-조선미술박물관, 2007
- 조계종, 북한의 건축문화재, 2006
-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사전, 2005
- 국토통일원, 북한의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실태, 1986
- 崔常壽, 北韓無形文化財의 內容과 傳授, 『북한』 제27호, 1974. 3, 북한연구소, p.238-243
- 장정룡, 북한 민속과 문화정책, 문화유산 실태, [통일문제연구] 13호, 1997, 강릉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p.1-16
- 광대웅, 북한 공예의 동향과 전망, 『동양예술』 제3호, 2001, p.113-138
- 장주근, 1950-2000년대 사진으로 보는 민속의 어제와 오늘2, 국립민속박물관, 2003
- 문화재청, 『북한의 천연기념물 및 명승 편람』, 2006
- 김응환, 전영선,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연구-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법령을 중심으로, 『민족학연구』 제2집, 한국민족학회, 1997, p.179-219
- 장명봉(편), 『최근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05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03. 12)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2004. 8)
03.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2005. 2)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2005. 3)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2005. 6)
06. 남북관계발전의 법적 이해 (2005. 6)
07.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2005. 9)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하였나? (2005. 9)
09. 남북한 IT용어 비교 (2005. 9)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2006. 3)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2006. 4)
12.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2006. 9)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2006. 12)
14. 북·중 국경무역과 북한의 시장실태 (2006. 12)
15. 알기 쉽게 풀어쓴 통일이야기 (2006. 12)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상 (2006. 12)
17.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2006. 12)
18. 북한의 의료실태 (2006. 12)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2007. 12)
20.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2007. 12)
21. 북한의 체육실태 (2008. 7)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2

북한의 문화재 실태

- 발 행 일 2008년 12월 26일
- 발 행 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142-715,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인수동)
전화 02)901-7161~7 /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 편집/인쇄처 에드윈 전화 02)2272-7571

(비 매 품)

… 북한은 민족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에 있어서
민족문화 그 자체의 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다기 보다는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활용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